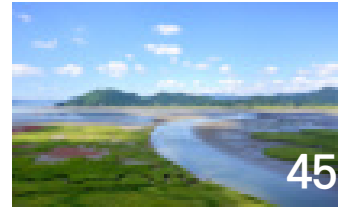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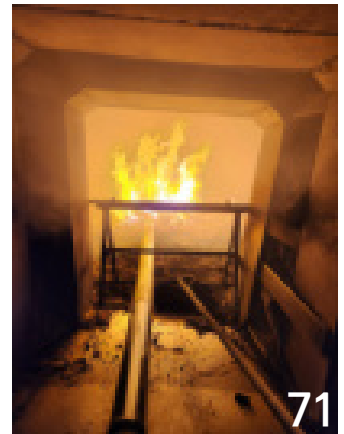
- 02 갤러리 용인 | 숨어있는 길 / 김연주
- 04 권두시 | 오래된 골목 그리기 / 이미상
- 06 용인의 창 | 용인문화원장에 취임을 하며 / 최영철
- 08 문화예술인물 인터뷰 | 용인시 향토민속문화재 4호 사기장 마순관 / 김정희
- 19 기획 | 문화도시 2.0 포럼
 - 19 플랫폼시티와 '문화도시 용인' / 김종경
 - 27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공생의 길 / 우상표
 - 34 지역 정체성을 담은 도시 브랜드의 필요성 / 김장환
 - 41 지역 문화예술, 치유와 성장의 주역으로 / 최현석
- 50 비지정 문화재 | 구성 마복동이 용인의 옛 중심지임을 알려주는 마복동 비석군 / 한재동
- 54 용인의 역사스토리텔링 | 용인의 다섯 효자 이야기 / 김도영
- 63 세대공감 | 커피(coffee) / 남기주
- 71 사라져 가는 것들 | 용인한증막 / 이은성
- 79 휴 & 힐링 | 눈과 몸과 마음의 힐링의 공간 똑플레이스 / 이미경
- 85 전국역사문화기행 | 경남 함양 편 / 장이영
- 95 특집 | 용인 대표축제가 없다...그래도 '처인성 문화제'가 있다 / 함승태
- 100 문화원 · 문화계 소식



13



45



71



처인성 문화제

제32회 처인성문화제가 지난 6월 3일부터 4일까지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처인성 일원에서 개최됐다. 용인문화원과 처인성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처인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세계 최강 몽골군에 맞서 싸운 김윤후 승장과 처인 부곡민의 호국 의지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또 처인성 관련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려시대 처인성 승첩의 의미를 조명하고 용인시민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처인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 글/사진 : 김종경 용인신문 발행인

발행인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편집인** 정양화 용인문화원 부원장/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김지혜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박숙현 용인문화원 이사 남기주 용인문화원 이사 유기영 용인문화원 이사 김정희 용인스토리텔링연구소장

기획/행정 이현구 이설아

발행처 용인문화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문화예술원 1층

전화 031.324.9600 **팩스** 031.324.9634 **이메일** ycc50@hanmail.net

제작 북앤스토리 031.336.8585





오래된 골목 그리기

이미상

시멘트 담벼락을 목도리처럼 펼친다
저녁 어스름은 담벼락 위에
윗집 흥기 엄마 분홍 뺨스는 어스름 아래
어둠은 낮은 곳부터 어두워진다
언니가 물 바케스를 들고
다리를 절며 지나간다
가로등은 17-20미터 떨어져 있다
담벼락까지 가로등을 끌어오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
가로등 긴 팔이 담벼락 아래 왔을 때
우리 반 민경이가 지나간다
민경이는 몰래 흥기네 문 앞에
이별의 편지를 두고 간다
밤의 저수지처럼 골목은 깊다
하이힐 소리도 급해진다
취객의 어제와 같은 고성방가는
담벼락 뒤로 보낸다
사거리 보리수 다방레지 물방울 치마를
군청 계장 포마드 머리가 따라간다
펼럭 물방울 치마와 번들 포마드 머리
담벼락에 기대어 엉키다 사라진다
가로등은 지쳐 눈꺼풀 내려앉고
새벽 교회 종소리 들린다
다시 언니가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지나간다

아버지는 이 골목을 내 열일곱에 팔아버리고
아직까지 다시 사주지 않았다

© 이미상

경기 포천 출생, 2007 《불교문예》등단, 산문집《어디든 멀리 가고싶은 너에게》시집《좀 더 자렴,》

용인문화원장에 취임을 하며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21세기 문화도시를 선도하는 용인문화원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용인의 문화를 이끌어 간다는 기쁨보다도 이 직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제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열두 분의 역대 원장님들께서 혼신의 열정을 받쳐 이룩해 놓으신 반석이 있기에 그 터전 위에서 추호의 흠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오로지 지역문화에 대한 애정 하나로 수십 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용인문화원 이사님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대 용인문화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릴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하는 문화원, 소통하는 문화원, 공유하는 문화원을 지향하겠습니다. 문화원 고유의 기능인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각층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교육 및 시민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활력이 넘치는 문화원, 누구나 찾고 싶은 친근한 문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전통문화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시민이 문화원을 통해 왕성한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문화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110만 인구의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공평하게 문화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3개 구에 문화원 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개 구로 분구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용인문화원이 소재하고 있는 처인구는 문화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기흥구와 수지구 주민들에게는 아직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추후 <용인시 지방문화원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분원을 설립하고 3개 구민들이 공히 문화원을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가운데 문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학 활성화입니다. 현재 용인문화원은 용인학연구소, 규방문화연구소,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용인스토리텔링연구소 등 지역학 연구를 위한 부설 기구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설 기구

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깊이 연구하고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각기 독자적인 영역에서 지역학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역학 진흥이야말로 문화원의 미래요, 최대 경쟁력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문화를 통한 '소통'과 '상생'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o Culture, No Future(문화 없는 미래는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문화원의 책무와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용인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용인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동 용인시 향토민속문화재 4호 사기장 '마순관'

김정희 _ 용인학연구소



지난 2023년 2월 향토민속문화재 제4호 ‘사기장’으로 마순관 백암도에 대표가 지정 되었다. ‘향토문화재’는 국가문화재나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 문화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기술적·경관적 가치가 있고 지역적 특징이 뚜렷해 용인시가 지정하거나 인정한 향토유적과 향토민속을 말한다. ‘향토민속’은 향토문화재 중 전통적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보존이 필요한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백암도에 대표 마순관 공예명장이 지정된 것은 용인시가 고려시대 이후 특징적으로 발달한 도예화의 전승을 위해 사기장을 향토문화재(향토민속)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도자기는 흙으로 빚은 그릇을 구워내는 방법에 따라 도기(陶器), 자기(瓷器)로 나누어지는데, 백토 등이 혼합되어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그릇을 사기(자기)라 한다. 사기장이란 이러한 사기그릇을 구워내는 장인이다.

사기장은 서민적이면서 활달한 조선분청사기와 단아한 선비의 향을 담고 있는 조선백자와 같이 한국적 정감과 멋을 나타내는 전통공예기술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사기의 제작과정은 사토를 채굴하는 것부터 구워내는 작업까지이다. 우선 모래흙(사토)을 구한 후 물에 넣어 이물질 제거하는 수비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연토작업(진흙반죽과 기포빼기)을 마



친 뒤, 손수 흙으로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물레작업을 한다. 만들어진 그릇을 가마에 넣고 초벌구이와 유약을 바른 뒤 다시 재벌구이를 해서 구워낸다. 전통적인 나무로 만든 발물레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데, 이러한 물레 돌리는 방법이 한국 도자기 장인들의 기술이다.

마순관 사기장은 한평생 도자를 위해 헌신해왔다. 그는 어렸을 적 우연한 계기로 도예의 길로 접어들었다.

“양질의 백토가 나오는, 그러니까 고령토가 풍부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흙장난을 할 기회가 많았어요. 우연히 동네 도자 공방을 찾게 됐고 그곳에서 도예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 거죠.”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에서 백자 분야 최고 권위자인故 한익환 선생 밑에서 본격적인 도예를 시작한 마순관 사기장은 단순한 도예가가 아니다. 유명 도공들중에는 도자기의 공정 중 한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작가의 힘을 빌려 합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림이나 조각, 불때기 등은 대부분 전문가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마순관사기장은 수비, 연토, 목물레 성형, 분장, 시문과 전통가마에서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 최고 섭씨 1400℃ 온도로 견고하게 구워내는 전 과정을 고수하는 몇 안 되는 작가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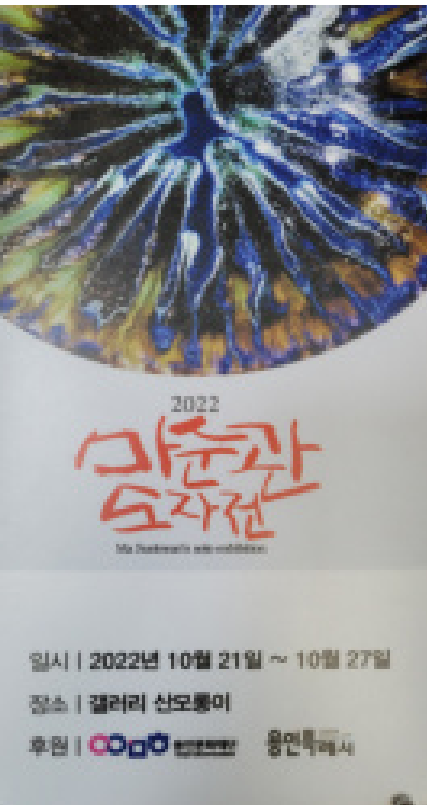
“전통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도자기를 알려면 전통을 알아야 하고 기본 바탕은 전통방식에서 출발해야 하죠. 대신 대중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대적인 요소도 가미해서 도자기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있죠.”

분청사기와의 인연

1993년 호암미술관에서의 ‘분청사기명품전’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분청사기는 회색이나 회흑색의 태토에 백토를 바르고 문양을 새긴 후, 그





위에 투명한 분청유를 씌워 구운 것으로 그 명칭은 분장회청사기에서 유래한다. 분청사기는 고려 청자가 조선 백자로 건너가는 변혁의 시기에 다리 구실을 했던, 말하자면 과도기의 산물이었다. 15세기의 100년 동안에 집중생산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자유분방한 시대적 미감을 ‘제격’으로 표현했다. 최순우의 표현으로 ‘맨발 벗고 들에 나선 건강한 아낙네’ 같은 모습이다.

‘분청사기명품전’은 분청사기의 아름다움과 숨겨진 그 깊은 멋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장르와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져 온 한국적 멋에 대해 고찰하는 한편, 자유분방한 분청사기의 현대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한 시기에 ‘분청사기명품전’의 시연작가로 선정된 것은 도예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좋은 기회였다. 도예의 장르를 확장하게 된 새로운 눈뜸이었다. 격식 있는 전통도예와는 다른 장르의 분청사기는 문양처리나 기법들이 아주 다양하고 표현이 아주 자유분방한 모습을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매력을 갖게 되었다.

“분청자는 백자, 청자, 옹기의 기법 모두를 접합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이 다 들어 있는 도자기 장르입니다. 거기에 상감, 인화문, 철화기법 등 그림이나 조각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양하고 문양도 자유롭기 때문에 생기가 있어요. 투박하고 질박하기에 분청자가 쉬울 것으로 오해받지만 진정한 맛은 어느 경지에 올라서야 표현이 가능한 고도의 기능이 필요한 장르라고 생각해요.”

마순관 사기장의 작품은 솔직하다. 그가 만들어내는 도자기에는 순수한 그만의 세계가 표현된다. 특히 분청자에 표현되는 아름다움은 솔직하고 투명하다. 분청모란문 접시나 백자달항아리에서 보이는 단아하고 세련된 멋도 있고, 분청연문편호에서는 소박하고 질박한 분위기도 물씬 돌아난다. 제멋에 겨워 새긴 흥겹고 싱싱한 선과 면 구성 때문에 ‘파격’이란 말이 걸맞다. 물고기도 그리다 만 듯, 꼬불꼬불 곡선은 제멋대로다. 새의 그림도 선만 따라 그린 듯, 장육진 화백의 그림을 닮은 듯 과감히 생략된 모습에서 사람들은 추상성과 현대성을 이야기한다.



고려백자연구소 대표작가

마순관 사기장은 분청사기에 매료되었지만, 그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는 고려백자연구소 대표작가다. 그동안 용인 곳곳에 위치한 고려가마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고려백자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백자의 원조' 용인을 알리는 도예가로 평생을 활동해 왔다. 그는 용인이 도자기의 고장이라는 점에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이 도공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용인의 서리고려백자요지 도편들을 가져다 분석하고 연구도 하며, 도요지 발굴작업에도 참여하는 등 용인지역의 가마터는 모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기록했다.

“용인은 그 어떤 지역보다 도자기 관련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용인지역 가마터가 있다는 곳은 다 가봤죠. 밤낮없이 계절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용인은 그 어떤 지역보다 도자기 관련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서리 가마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할 정도죠. 그만큼 지역엔 관련 자료나 유물도 많습니다. 이들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려시대의 대표적 도자공예품으로 청자가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백자의 존재는 미미하게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백자는 청자가 처음 시작된 10세기 전반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용인시 이동읍 서리, 여주 증암리 등지와 같은 한강 이남의 몇몇 전축요계 가마에서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자와 기원이 같다. 그러나 고려백자만 전문적으로 만든 가마터는 경기도 동남부의 용인 서리 요지와 여주 증암리 요지 둘밖에 없을 정도이다. 나머지 고려백자 가마터는 고려청자 가마터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려백자는 당대의 주류에서 벗어난 마이너였다. 화려한 청자와 고려, 순박한 백자와 조선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사실 백자가 청자보다 만들기 더 어려운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다. 현재도 고려백자 유물은 매우 드물어 희소성이 있으므로 가치가 높으며, 대체적으로 유물들의 예술적 수준도 역시 높다.

서리고려백자요지는 네 번의 발굴조사로 고려 초기부터 백자를 생산하면서 한편으로는 왕실에 제기를 공급한 주요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고려백자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은 시작되었지만, 서리고려백자요지가 가야 할 중심에 마순관사기장이 있다.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주위에 나무와 태토 등 꼭 있어야 할 입지적 조건이 필요한데 서리백자요지는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아직 살아있는 터예요. 보여주기식의 선부른 유적지 조성보다는 각계 전문가의 조언은 물론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해요.”

마순관 사기장의 백자는 손맛을 추구한다. 손으로



하는 맛! 멋!을 지키고 싶어 한다. 도자기를 하는 도공들은 마순관 장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마순관 장인은 밟고 다니는 흙은 모두 사용한다. 흙에서 가장 중요한 점성, 힘, 내화성(불을 견디는 힘)이 세 가지를 맞춰주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도자기의 태토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세상의 모든 무기물은 다 도자기의 원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다른 성질의 흙이 보이면 가져와서 실험을 해보면 너무 재미가 있다. 전국의 땅이 다 내 땅이라고 한다. 흙이 다르면 흙 자체의 질감을 살리기도 하고 색깔의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도자기는 실험적이고 독특한 문양을 가진 도자기가 탄생한다.

분청사기에 그려지는 그림들은 인위적인 디자인이나 무늬의 구도를 계획하지 않고도 절로 물고기가 새겨지고, 모란이 핀 5월의 물가에서 물새가 상큼하게 걷고, 버드나무 늘어진 연못 속에는 한가롭게 물고기가 노닐며 하늘에서는 새가 날며, 호수 한가운데 소담스러운 연꽃이 피어난다. 이들 모두가 천진난만하면서도 자연스럽다.

용인 예술인 총연합회의 디딤돌

용인 예술인 총연합회(이하 용인예총)은 1996년도에 용인 예술인 협의회를 전신으로 1998년도에 설립하였다. 용인지역의 예술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자 성남시의 예총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었다. 용인예총의 수장으로 4년 동안 직무를 맡아, 열정을 가지고 밤새는 줄도 모르고 일을 재





미있게 하면서 용인지역의 예술인들의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광주 여주 이천에서 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할 때 용인도 참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예산상, 절차상의 여러 이유로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이동읍 서리 상반에 현장박물관을 임시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전시하였다.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러한 외국인들을 초대하여 아주 적은

예산으로 국제적인 도자기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열정 하나만으로 이루어낸 성과였다. 다음 해에는 경안천에서 '꽃과 도예의 만남'을 개최하여 성공하였다. 그러나 임기 동안 대내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본연의 임무인 작품활동에 매진하고자 직무를 내려놓았다. 그렇다고 용인예총을 떠난 것도, 용인예총에 대한 관심을 접은 적도 없다.

2016년, 공예명장

공예명장은 도예, 금속, 장신, 목공예, 석공예, 섬유, 종이 등 6개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 후보자를 받아서 선발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능성이나 활동사항은 국가의 명장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다. 공예를 하는 사람들은 명장으로 선발되는 것이 소원이고 희망사항이다. 이러한 공예명장에 마순관 장인이 선정되었다.

마순관 장인은 30년이 넘게 도예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입선, 경기도 공예품 대전 입선, 용인시 문화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다. 또 대학교에서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 미술치료 재능봉사와 도예체험 전시 등 여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예명장으로서 도예를 널리 알리고자 교육사업을 하는데, 상현동, 죽전동, 신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도예교실을 15년째 하고 있다.

그곳에서 만든 도자기는 유약을 입혀 매주 백암도에 공방에서 날을 정해 굽는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물장난, 불장난, 흙장난인데, 아이들에게는 그릇의 완성도보다는 흙놀이 위주로, 학생들이나 어른들에게는 집에서 쓸 수 있는 나만의 그릇 만들기를 위주로 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제이기는 하지만 도자기에 대한 쉬운 접근성을 위해 백암도예공방의 공간을 오픈하는 등 지역 내에서 도예 기술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2023년 6월 1일부터 ‘도자사랑 꽃이 피다’ 주제의 작품전이 갤러리 산모퉁이에서 전시되고 있다.

도자기 문화의 출발점이며 1000년의 역사를 품은 용인을 알리고 21세기 시대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도자기의 시작점도 용인이 되고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후학들에게 지식 나눠주기를 서슴지 않는 마순관 명장은 오로지 한 길을 걷고 있다.

2023년, 용인향토민속 문화재 ‘사기장’

용인시 향토문화재 선정은 용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마순관 명장은 용인의 도예문화를 널리 알리고 용인고려백자에 대한 전승과 계승의 목적을 가지고 ‘사기장’을 신청했다. 그 결과 용인에는 처인구 이동읍 서리와 백암면 고안리, 기흥구 보정동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가마터가 고루 분포하고 있고, 용인 도예 문화의 상징성과 향토성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마순관 명장에게 사기장을 부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기장의 향토민속 지정은 용인 도예문화 전승과 상징성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용인시의 도자기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무형문화재의 목적

은 문화재의 계승에 있다고 말하는 마순관 사기장은 전수관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각기 개인의 전수관을 설립할 수 없다면 공동 전수관이라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용인에 있는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판소리 김청만, 가야금산조 및 병창 강정숙 소목장 박명배, 종묘 제례 이형열, 경기민요 이춘희, 줄타기 김대균) △도지정(자수장 신상순, 악기장 최태순, 주성장(불구) 이완규, 경기고깔 소고춤 정인삼) △용인시향토 민속(할미성 대동궁 보유단, 경기향토소리 보유자 최근순, 보곡상여놀이 보존회, 사기장 마순관) 총 14명으로, 이분들을 위한 전수관이 하루빨리 생겨났으면 한다.

2023년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 미르스타디움에서 도자기조합 주관의 ‘도자기축제’도 계획하고 있



고, 또한 원삼면의 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계점이 있으면 시도를 안 했을 것이다.

도자기의 세계는 무한계이다. 한계점이 있으면 도자기를 안 했을 것이다.

요즘은 청자, 백자, 분청자를 합하여 새로운 장르의 도자기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전통도자기는 이미 많이 만들었으나 그것만을 만드는 것은 답습 또는 재현이라고 생각하는 명인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창작이라고, 작품이라고 한다. 전통은 중요하다. 그래서 배울 때는 달항아리도 만들고 분청사기도 만들고 하겠지만, 작품은 자기만의 색깔을 내야 한다. 그것이 마순관 장인이 도자기를 대하

는 자세이다.

피카소가 말년에 '도자기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표현했다. 도자기는 표현하고 싶은 것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릴 수도 있고 조각하는 사람은 조형물도 만들 수 있고, 입체적이거나 평면적인 것을 모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예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마순관 사기장은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갤러리 산모퉁이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고난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하늘이 보이는 방에서 쏟아지는 햇빛과 빗줄기와 소박한 눈을 보며 책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즐긴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 아는 것은 오로지 도자기뿐! 인생의 전부이다. 70세가 가까운 지금까지 그 흙이랑 친구다.



플랫폼시티와 ‘문화도시 용인’

백년대계 ‘도시문화 기본계획안’ 수립 필요
전문가 포함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

김종경 _ 용인신문 발행인/대표



정부가 2023년 용인특례시에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을 발표, 용인지역 부동산 시장은 물론 지역 민심까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 2019년 발표한 기흥구 보정동의 ‘용인 플랫폼시티’와 처인구 원삼면 일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는 별개로 300조 원이 투자되는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면 일대 710만㎡(215만 평)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와 최대 150여 개에 이르는 국내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플랫폼시티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만으로도 몇 년째 들쭉거렸던 용인지역에 또다시 메가톤급 투자계획이 발표된 셈이다. 물론 20년이라는 장기계획이기에 많은 변수가 예상되지만, 현재 추진 중이거나 발표된 내용만 놓고 본다면 민선 8기 용인 르네상스 캐치프레이즈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용인시 입장에서는 초 혁명 용인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물론 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아파트 vs 산업 · 플랫폼 노마드 도시

용인특례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공동주택건설과 택지개발로 현대판 신유목(New Nomad) 도시로 변모해왔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도시공간 플랫폼은 아직도 공동주택단지 건설과 디지털 산업화 공간(대규모 물류시설 포함)으로 전환 중이다.

1996년 시 승격 이후 용인특례시가 되기까지 크고 작은 아파트 및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용인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시·군별 인구 순위는 1위가 수원시 122만 5058명, 2위는 용인시 109만 2294명, 3위는 고양시 108만 8153명, 4위는 화성시 94만 9187명, 5위는 성남시 93만 6989명 순으로 크게 변화하며 바뀌었다.

용인시는 현재 경기도 전체 인구 1400만 명 중 서열 2위의 대도시다. 용인시는 개발잠재력이 무궁무진해서 조만간 수원시를 제치고, 1위는 물론 광역시급 인구수에 도달할 전망이다. 인구 소멸지역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시 인구 증가율이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와 SK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만 원만 하게 추진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도 급부상할 수 있다. 30여 년 전, 용인시가 수도권 중핵 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는, 막연한 구호와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 르네상스 = 문화도시 용인

문화도시는 짧은 시간, 자본의 힘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공동체 역사와 긴 호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전통 있는 문화도시가 되려면 자연·환경·역사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문화인프라 구축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지구촌에서 가장 융성했던 문화강국들도 오랜 전쟁과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파괴와 건설을 거듭해왔다. 오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도 부침이 심했다. 전쟁과 질곡의 역사를 겪어온 국가이기에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각각의 문화 정체성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지방정부, 즉 자치단체별로 색깔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내기는 더더욱 힘들다. 특히, 도시의 난개발과 급속한 인구 유입 증가율을 보여온 용인시는 도시의 전통문화나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선뜻 내세우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용인시 집행부나 의회,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예술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법정 문화도시 용인' 지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문화에 대

한 갈증과 해소 욕구가 정부의 문화정책에 편승하려는 기대감으로 뒤바뀐 것이다. 문화 욕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자칫 디지털 회색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용인시민들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첨단 문화도시 용인'을 꿈꾸고 있을지 모른다.

현재 플랫폼시티 계획안에는 구성역(용인GTX) 중심의 '경제도심'과 용인시청 중심의 '행정도심'으로 권역으로 나뉘어있다. 그러나 이제 국가산업단지 계획안까지 발표됐으니 좀 더 세밀한 도시기본계획안이 필요하다. 시는 현재 세밀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새 도시계획에는 밀그림부터 '문화도시 용인'의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인문학적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기존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에는 '문화 생태계' 실현에 필요한 고민의 흔적이 있었을까. 혹시 있었다면, 도시개발과정에서 실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다. 광의적 측면에서 문화는 자연생태보존(공원 포함)을 비롯해 주거공간 구성 및 상업 시설 조성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려야 하지만, 현재의 도시개발결과를 보면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이었는지 의문이다.

물론 도시개발속도와 산업환경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자치단체에서 만들었던 도시기본계획안 밀그림이 국가산업단지나 대규모 택지개발계획 같은 돌발 변수까지 반영하기 힘든 것도 원인일 수 있다. 게다가 용인시는 1차 적으로 공동주택건설 난개발이 선행됐고, 그 후폭풍으로 다년간 물류센터를 비롯한 산업단지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행정가와 시민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용인 도시개발 현장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



간 도시는 한번 망가지면 절대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플랫폼시티는 2023년 6월 현재, 토지보상이 추진 중이다. 용인 기흥구 보정동 일원 약 276만㎡(약 83만 평) 규모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다. 당초엔 약 30만㎡를 용인플렉스, 즉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민관합동방식을 추진, 검토해 왔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와 용인시는 GTX 용인 역세권 복합개발과 자족도시 플랫폼을 실현해서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 자족도시를 실현, 새로운 용인시 도시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혀왔다. 또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SK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정됐고, 2023년엔 정부에서 처인구 이동면과 남사면 일원에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지정, 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

산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용인시는 명실상부한 I자형 반도체 도시완성과 함께 용인 르네상스, 즉 ‘문화도시 용인’의 토대를 갖추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시티, 문화와 어떻게 연결하나?

용인시는 시 승격 후 30년도 안 돼 특례시가 되었고,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도시화율은 더 높아질 것이고, 도시브랜드 지수는 세계 상위권 수준에 랭크될 수도 있다.

‘2023 제1회 문화도시 지역 포럼’에서 필자가 말해줬던 것처럼 도농복합시인 용인특례시의 농촌지역에선 아직도 축산분뇨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첨단 데이터센터 전자파 유해성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도농 간 민원도 양극화 현상이 크다. 분명한 현실은 용인의 농촌 지역은 소멸지역으로 귀결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기존 베드타운의 무차별 확장과 물류 산업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처인구의 농지와 임야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수 백 년간 이어온 공동체 문화가 순식간에 붕괴하고, 다시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그런데도 기존 시민들은 시대변화에 적응하며 멈춘 '도시의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는 '문화도시'를 꿈꾼다. 문화가 담보되지 않는 공동체와 삶의 질 보장은 없다. 그래서 '문화도시'라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를 망라한 또 다른 광의적 측면에서 해석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 스마트 도시와 도시재생사업

해외에서 문화도시와 유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벤치마킹 중인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문화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에 좋은 비교사례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유럽에서 가장 힙한 도시로 알려진 암스테르담이다. 암스테르담은 유럽을 대표하는 스마트 시티다. 기업·거주자·지자체·연구기관 등 민관협력을 통해 도시 문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해결책을 테스트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이유는 바로 문화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반 고흐 미술관도 이곳에 있다.

두 번째는 캐나다 토론토다. 50년간 방치돼 있던

809만㎡(244만 8000평) 일대의 도시재생을 위해 정부 기관인 '워터프론트 토론토' 설립을 통해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기존 도시계획과 실제 도시와 연계해서 디지털 계획과 통합해 추진했다. 이로 인해 도시혁신 생태계의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 사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다. 이곳에선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했다. 바르셀로나가 스마트시티로 만들어졌기에 가능했다. 용인시가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성장한다면 반도체 엑스포를 비롯한 소부장 업체들의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세계적인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

스마트시티나 도시재생사업의 공통점은 베이스를 문화도시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시티나 도시재생사업은 이름과 형식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 '문화'라는 뜨거운 심장을 함께 심어야 되살아날 수

있는 회색 도시라는 것이다.

플랫폼시티, 문화인프라 구축해야!

용인 플랫폼시티를 문화도시로 연결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 용인시는 이제 백지상태에서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새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인구 200~300만 광역시로의 전환을 함께 준비해 할 시기가다.

이를 위해서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연전시장(디지털공간 포함)을 비롯한 국제 규모 컨벤션센터 등 대도시 공간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 확충사업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같은 도시문화 인프라 수준에 머물러버린다면 덩치만 큰 아이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문화도시를 산업생태계로까지 연계하려면 최소 50년, 멀리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용인의 중심핵(코어)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 정체성 확립과 2023년 ‘법정 문화도시 용인’ 지정은 엄밀히 말해서 플랫폼시티나 반도체 클러스터와는 물리적 시간적 괴리감이 크다. 플랫폼시티를 문화도시 용인과 연결시키려면 적어도 10년 전부터는 준비했어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상관없이 새로 유입되는 디지털 유목민과 기존 주민들이 융합할 수 있는 광의적 의미의 ‘문화’를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 이는 ‘지역(로컬)문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어느 사회든지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다. 공동체 문화가 도시 정체성까지 규정짓는다.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들은 기존 세상과 벽을

쌓고, 또 하나의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게 된다.

용인시는 현재 L자형 반도체 도시를 계획 중이다. 필자는 L자형을 ‘반도체 문화(컬처) 벨트’처럼 ‘문화’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 문화 환경이 턱없이 부족한 용인시는 이번 기회에 컨벤션센터, 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전시관, 디지털 문화 정원 등 앞으로 만들어야 할 시설들이 산적해 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지만,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인프라 조성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인프라를 조성하지 않으면 삭막한 디지털 사막 위에 세워지는 도시 공동화 현상을 목격할지도 모른다.

현재 진행 중인 처인구 중앙동 ‘도시재생사업’도 인근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맞물리는 디지털 문화인프라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중앙동이야말로 원도심

인 만큼 새로운 디지털 융합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용인 르네상스’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

용인특례시의 ‘문화도시’ 첫걸음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필자는 기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조직과는 별개로 좀 더 전문적인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미래·문화·환경사회학자 같은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문화도시 설계자들, 즉 ‘문화도시 용인’을 위한 새로운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아울러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안) 같은, 최소 50~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용인문화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그래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공생의 길

우상표 _ 용인시민신문 대표이사
용인문화원 이사/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

1. 왜 도시재생인가

용인을 상징하는 수식어 중 하나는 급성장이다. 그 이면엔 그늘도 있다. 문화적 성숙을 동반하지 않은 가운데 찾아온 불균형의 문제다. 용인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2.0’ 선정 여부를 떠나 내실있는 도시발전과 품격있는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불균형 개선은 여러 측면에서 깊어야 하겠지만 도시공간을 놓고 보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전통적 원도심(구 시가지)의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원도심은 그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원형을 담고있는 콘텐츠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도심 살리기는 경제생활 영역을 넘어 도시 역사의 복원작업이기도 하며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원도심 활성화를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의 길이다. 첫째, 도시재개발은 쇠락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규모 철거를 동반한 물리적 개선 방법이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

면서 본격 활성화되었다. 용인에서 그간 처인구 김량지구 등 여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

그러나 도심재개발 또는 주택재개발 방식은 주택 및 물리적 시설의 불량, 노후화를 개선하고 도시인프라 구축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드러내왔다. 기존 공동체의 해체, 주체 사이 이해 갈등,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훼손, 생활터전 상실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이란 파괴와 철거 개념의 개발이 아니라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문화와 예술 등을 가미해 지역 특성을 살려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원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기도 하다. 낙후된 도시를 되살리는 일이라는 점에선 같다. 하지만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공동체 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사회·물리적 방식 등 다양한 유연하고 다양한

1)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2023년 1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대상지 12곳, 재개발 대상지 8곳, 소규모 정비사업 2곳 등을 추진하며 ‘찾아가는 재개발 재건축 소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재생사업은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이 강조되는 사업방식이다. 나아가 도시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과정적인 활동으로 이해관계자간 합의 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한다.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도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 개념이다.

선진국에서도 도시재생을 실천적인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동체 운동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마을만들기운동 차원에서, 영국에서는 근린지역 재생운동(New Deal for Community)과 연계해 있다.

2.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도시재생사업의 큰 축은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지자체 대상 전국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는 현재 4곳이다. 첫 번째는 신갈오거리 일대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신갈로 58번길 일대 21만135㎡는 2021년부터 2024까지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시·도비 119억원, 공기업 투자 235억원 등 총 484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상권 회복,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 스마트 도시재생 등 4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대응투자로 용인시는 10개 사업에 총 50억을 투입한다.

두 번째로 김량장동 도시재생 사업이다. 2022년 12월 용인중앙시장 일대 대상 <지역특화·스마트 재



생 대상지)로 최종 결정됐다. 중앙동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처인구 김량장동 137-1번지 일대 20만467㎡(6만평)에 스마트 기반 창업지원 교육공간과 수변 공간 문화광장 조성, 경안천 수변로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용인 대표 상권이었던 용인중앙시장이 쇠퇴하자 용인시는 중앙시장 주변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시장 근처에 경안천과 금학천 등의 훌륭한 수변 자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 활용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며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포함된다. 국비 155억 원, 도비 31억 원을 지원받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652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용인중앙시장에 스마트 기반 창업지원 교육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유입 인구 증대를 통한 상권 활성화 계획이 추진된다. 특히 시장 내 거점 역할을 할 ‘김량장 스마트 워크 플랫폼’ 조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²⁾

세 번째는 구성·마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례다. 2022년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지’로 선정되어 국비 1억1000만원과 도비 33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사업 방향은 노후 도심 안전 강화와 도시미관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인시는

2) 용인시민신문 (2022.12.19.) 기사 참조, 용인중앙시장 ‘지역특화·스마트’하게 도시재생한다.

2022년 7월부터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 본사업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공·폐가 담장 쌓기, 나대지 안전펜스 설치, 낮고 빛바랜 주택 담장 디자인 도색,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쓰레기 수거함 비치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넷째로 수지 풍덕천동에서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이다.³⁾

3.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의식

그렇다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개발의 약점을 극복하는 최선이 될 수 있는가. 역시 한계는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문제의식은 지속가능성 여부다.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기간은 보통 3~4년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일정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명 매칭사업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일반근린형)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김량장동 지역특화 스마트 재생사업 역시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사업기간이다. 용인은 현재 진행형이라 드러나지 않지만 최근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종료 이후 주민 무관심과 지자체의 후속 작



3) 수지 풍덕천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2022년 8월 수지구 풍덕천동 72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역주민, 관련분야 전문가, 용인특례시의원 등 40여 명 참석했으며 용인시는 도시재생사업 방향 및 전략, 연차별 추진 계획,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이 자리에서 설명했다.

업 부재로 인해 방치되는 사례마저 지적되고 있다.

주민참여와 주도성 확보도 핵심이자 본질적 문제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내서 선정되면 진행된다. 형식적으로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개념과 본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주민을 대상화 하고 사실상 관이 주도하는 경우 사업과 주민과의 괴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경험에 비춰보면 지역주민들 역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제한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주민들은 제한되어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고, 관련 사업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없으면 참여조차 어렵다. 특히 공모사업방식은 기획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대개 관련 경험이 많은 이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공모사업 전문가와 일부시민의 복수사업 참여 등으로 귀결되곤 한다. 결국 주민참여와 주도성 확보라는 핵심은 현실에서 관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투자 대비 성과여부도 도시재생사업에 던지는 문제의식 중 하나다. 김량장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42억 원에 달한다. 신갈오거리 관련사업도 464억 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 투자된 비용만큼 주민 체감도를 높이자면 보여주기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게 마련이다. 근본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도 따져 볼 일이다.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 하며 내 삶이 나아져야 한다. 또 하나 갈등적 요소는 접근 방식이다. 재개용 인4구역과 용인5구역 주택개발 정비구역이 결국 해체절차를 밟고 엄청난 매물비용까지 지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⁴⁾ 설령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사례는 흔히 보게 된다.⁵⁾

4. 문화적 접근으로 대안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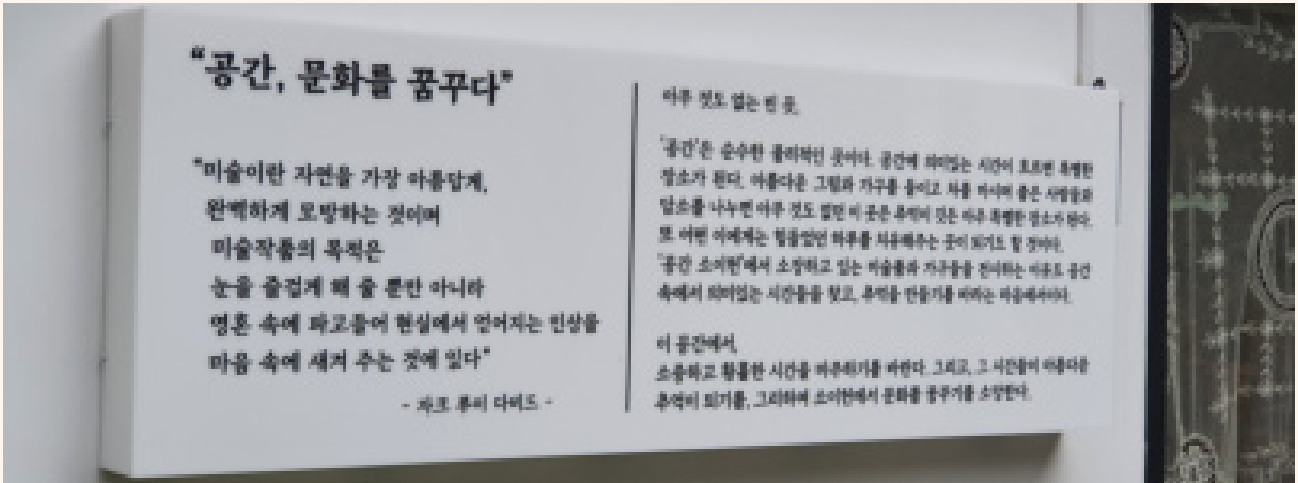
1) 지역문화자원의 발굴과 콘텐츠화

김량장동 지역특화 스마트 재생사업의 경우 ‘김량장’이란 굵직한 콘텐츠가 있다. 특히 김량장 ‘133번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집단거주지이자 생계터전이었다. 적산가옥 발굴과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서 충분하다. 조선시대 한옥, 구도심 적산가옥, 70년대 단독주택 등 시대별 건축물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신갈동은 근대 이후 용인 교통의 중심지로서 가옥, 교통시설 등의 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신갈오거리매거진 마을기자단은 어른들의 기억과 증언을 바탕으로 70년대 말 신갈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갈래 마을지도를 완성하기도 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대장간, 도축

4) 2019.10.17.일자 용인시민신문 기사에 따르면 사업 장기화와 낮은 사업성, 자부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을 빚어온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용인4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용인5구역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처인구 김량장동 199번지 일원(옛 교육지원청 터 및 공신빌라 주변) 3만7733㎡로 구역 지정 당시 45개동 34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중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에 438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왔다.

5)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본래 낙후되거나 저소득층, 영세 기업이 주를 이루던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고급 주택과 대형 문화·상업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경관이나 사회기반시설은 크게 개선되지만 지대가 상승하여 원주민 또는 임대인이이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나무위키>



장, 신갈역, 떡방앗간 등의 위치와 현재 변화된 장소 특성은 앞으로도 지역연구와 역사문화 콘텐츠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마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시 장육진 고택, 하마비, 용인향교, 용화전 미륵입상 및 탑재, 민영환 선생 묘, 연안부부인 전씨묘 등 유·무형의 문화자산이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풍덕천동 역시 풍덕내와 포은 정몽주 선생 천장(遷葬) 이야기, 한국전쟁과 풍덕천 비사, 난개발과 풍덕천 등 적지않은 소재가 있다.

2) 미술관, 박물관, 공원 등 문화자원의 설치 또는 연계

지역특색에 맞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 자원과 재생사업을 접목하는 경우는 전국 여러 재생사업 현장에서 권장되고 있다. 신갈동 사업지의 경우 상갈동과 연계를 적극 추진해 봄직하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비 45억 원과 시비 45억 원 등 총 90억 원을

3년간 투자해 G-뮤지엄파크(백남준아트센터·경기도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국악원, 한국민속촌 일대를 문화예술 체험관광 핵심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도시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에 새로운 관광산업이 창출되는 문화산업형 도시라는 융합형 모델도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아티스트 등 로컬크리에이터 입주 및 육성 지원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이라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의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에 도전하는 창업자들을 말한다. 오늘날 탈산업화 시대는 개성과 다양성이 경쟁하는 시대다. 미국 애플PC의 성공을 이끈 스티브잡스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공연장, 전시장, 서점 등 복합문화공간과 로컬크리에이터가 결합된다면 적지 않은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고 이것이 곧 도시공생이라고 믿는다.

4) 문화도시의 지름길-로컬 브랜딩

지역이 발전하려면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주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사는 동네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바로 동네를 마케팅하고 지역 가게를 브랜딩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특히 골목경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 골목상권이 곧 생활문화사업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자원이기 때문이다.(모종린)

이를 위해선 지역정체성을 잘 아는 인재들이 그 가치를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로컬 문화 예술계와 지역언론 등이 도시재생사업에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5) 도시의 고유한 문화자산 기반 앵커사업 추진

앵커사업(시설)이란 로컬브랜딩의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지원 또는 해결하고 주민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력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거점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김량장 스마트 워크 플랫폼' 조성계획이 대표적이다. 창업과 협업의 공간으로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기도 하다. 거점공간 등 필요에 따라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선 대부분 리빙랩(살아있는 마을 실험실)을 운영 한다. 리빙랩은 소통과 지혜를 모으고 공동체(마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공간이다.

결론을 대신해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용인시는 최근 창의적이고도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별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참여해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중이다. 그 가운데 도시공생이란 큰 틀에서 용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도 주목하고 있다. 용인은 김량장, 신갈오거리, 구성·마북, 풍덕천 등 거점별 원도심이 있으며 대부분 공통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원도심이 지닌 가치는 매우 크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주체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문화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한편 문체부 법정문화도시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급성장에 걸맞는 문화적 성숙은 새로운 도시정체성을 관통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과 문화도시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두루 살펴 보았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6) 골목은 로컬경제와 로컬문화의 중심이기에 앞으로 골목에 주목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모종린(62) 교수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인 모 교수는 '골목경제학자'로 통한다.

지역 정체성을 담은 도시 브랜드의 필요성

김장환 _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I. 도시 브랜드와 지역 정체성

오늘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각 지자체들은 지역 발전과 경쟁력 확보 방안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자원이 홍보되고 소비자에게 선택되기 위한 수단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도시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반적 개념의 브랜드란 다른 것과 비교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상품으로서의 브랜드는 비싼 가격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자체에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즉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차별화라는 얘기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차별적 가치를 제안하고 소비자가 그 가치에 공감하고 구매할 때 비로소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브랜드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도시의 브랜드를 결정하는 것은 타 도시와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다. 최근에는 도시 브랜드가 국가 브랜드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도 어느 국가를 간다기보다 방문할 도시를 특정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도시 브랜드는 특정 도시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역사적인 특성, 문화적인 매력, 행정 서비스, 그리고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인식하게 한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정립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용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이며,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적 특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이다.

본인은 용인의 정체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지리적 측면, 두 번째는 산업적 측면, 세 번째는 정신문화적 측면이다.

첫 번째 지리적 측면에서는 용인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는 점에서 '길'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산업적 측면에서 도자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용인은 우리나라 도자기의 시원지이고, 그 도자를 핵심 소재로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1

천 년의 간극을 넘어 도자기의 고장에 조성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특정 사상이나 조류, 혹은 종교적 기반을 마련한 인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고 싶다. 먼저 조선 성리학의 시조 정몽주 선생, 조선 후기 실사구시 학문의 물꼬를 튼 실학의 비조 유형원 선생, 그리고 사학(邪學)으로 박해를 받아 순교한 한국 가톨릭의 뿌리 김대건 신부가 그 주인공이다.

II. 용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 지리적 측면

용인은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내륙 산간 지역으로 전략상 요충지였으며, 삼남대로와 영남대로가 분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길을 따라 사람들이 오가면서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를 전파하면서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듯이 용인은 시대별 흥망의 역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재창조하는 복합 기능을 수행해 온 곳이다. 이것이 많은 지역 연구자들로부터 용인문화의 특징을 ‘다양성’으로 정의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용인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나 주거지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하천 주변과 낮은 구릉 지대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인들은 하천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하천 주

변의 낮은 구릉 지대에 거주하면서 농경 생활과 함께 어로 생활을 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용인은 5개의 하천이 분포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모두 용인이 발원지라는 사실이다. 용인에서 청동기 유적이나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이러한 하천을 끼고 청동기 시대의 유력한 집단이 모여들어 세력을 떨쳤기 때문이다. 즉 용인의 청동기 시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5개 하천이 흐르면서 형성된 물길이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용인은 백제의 세력권 안에 있다가 고구려가 ‘구성현’을 설치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6세기 중엽,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용인도 신라의 세력권에 편입되었는데,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신라의 세력 확장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 할미산성이다.

고려시대에 용인은 삼남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즉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로 내려가는 길목이었던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 길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이동읍 서리에 남아 있는 고려백자 요지와 관련된 도자기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사면 아곡리에 있는 처인성으로 연결되는 군사도로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 도로망을 기반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9개의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것을 9대로라고 한다. 용인은 9대로 중 영남대로와 삼남대로가 분기하는 갈림길에 위치하게 된다. 특히 영남대로는 한양에서 동래 부산포를 연결하는 1천리 구간이다. 영남 유생들에겐 과거길이고 보부상에겐 장삿길이었다.

또 영남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군사도로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런

가 하면 일본으로 떠나는 통신사가 지나던 길이다. 통신사는 세종 때부터 파견하기 시작한 외교사절단으로 1811년까지 204년간 12차례에 일본을 다녀왔다.

근현대에 이르러 도로교통이 크게 발달하게 되면서 용인은 더욱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1908년 수원에서 이천과 여주까지 이어지는 신작로(新作路)로가 개설되었고 1931년에는 이 신작로 노선을 따라 수여선 철도가 개설되었다. 1970년에는 용인 서부지역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었고 1975년에는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라진 수여선 철도의 일부 구간을 경유하는 신개념의 운송수단으로 경전철이 부설되었고, 용인-서울고속도로, 화성-광주고속도로 등 수많은 고속도로와 지선도로가 개통되었다.

특히 제2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된 SK하이닉스 클러스터를 유치하여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첨단 반도체 벨리를 조성하게 되었으며, 기흥 및 수지 권역에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83만 평 규모의 용인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늘날 용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모두 길이 연결되고 관통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시티가 조성되는 것도 용인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길’은 용인을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용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집약적인 문화 요소라 할 수 있다.

2. 산업적 측면

용인이 고려백자의 시원지라는 명성은 우리나라 학계뿐만 아니라 외국의 도자 사학자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마치 중국의 유명한 월주요나 자주요, 또는 청화백자로 이름 있는 경덕진 가마를 인식하듯이 한국에서는 서리의 고려백자 요지가 단연 으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종래의 학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도자기가 대략 10세기 말에 처음 출현한 것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발굴을 통해 9세기까지 편년을 소급하게 되었다. 초기 청자에서 볼 수 있는 해무리굽이 백자질의 자기에서 출토되었고 그것이 해무리굽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선(先) 해무리굽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도자기의 시원지가 바로 용인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인 각지에서 60여 기의 도요지가 발굴되었는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도자문화의 터전을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용인은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산실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것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도자기는 9세기 당시에는 첨단 기술의 하이테크 산업이었다. 즉 용인은 9세기에 이미 우리나라 하이테크 문화산업이 시작된 중심지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천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바야흐로 새로운 하이테크의 역사가 다시금 용인에서 시작되고 있다.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유치하였고, 금년에는 삼성 시스템 반도체 단지의 입지가 최종 용인으로 결정되었다. 원삼면

에 들어설 SK 반도체 클러스터는 10년간 120조 원이 투입되고,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들여 이동음과 납사음에 조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1천 년의 간극을 넘어 용인시에 구축될 전망이다.

여기서 도자기와 반도체의 관계를 알아보자. 도자기와 반도체는 공통점이 많다. 우선은 둘 다 흙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도자기는 점토에서, 반도체는 모래에서 시작한다. 도자기에는 도기와 자기가 있는데 썩썩 1250도 이상의 고온의 가마에서 구워낸 그릇을 자기라 한다. 자기는 도기에 비해 훨씬 가볍고 충격에 강하다. 자기 제작의 핵심은 흙과 불을 다루는 기술이다. 태토와 유약이 불순물 없이 정제되고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이 필수다. 가마불이 너무 세면 그릇이 녹아내린다. 가마에 갑자기 찬 공기가 흘러 들어가면 그릇이 그 자리에서 터진다. 장마철의 미세한 습기,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는 가마 내부를 틀어버린다. 그래서 도공은 가마를 신(神)처럼 모시고 가마의 온도, 기압 등을 유지하는 데 정성을 다했다.

반도체 제조과정도 이와 매우 흡사하다. 세라믹 파우더를 고순도로 정제하는데 원재료가 균일한 비율로 혼합돼야 한다. 이를 구워 웨이퍼를 만든다.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고 조각조각 잘라내면 각 조각이 반도체 칩이 된다. 세계 어디에서든 반도체 공장은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할 수 있어야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1000년 전 도공들이 가마를 다루던 정성과 반도체 회사의 박사급 엔지니어들이 공정의 온도·기압 등 각종 인자를 튜닝하는 노력은 공학적 정교함에 차이

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때문에 용인시가 지향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역사 문화적 기반은 9세기 하이테크 고려 도자문화임을 주목해야 하고, 1천 년 간극의 첨단 문화산업을 용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적인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첨단 산업시대에 용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3. 정신문화적 측면

용인은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아해하거나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용인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꿰뚫는 정신문화의 산실이라는 점은 다음 세 사람의 존재 의미를 이해한다면 누구든 쉽게 수긍할 것이다. 이들이 모두 ‘용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려말 ‘동방이학의 시조’라 불리던 포은 정몽주 선생이 용인사람이고, 조선 후기 ‘우리나라 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 선생이 또한 용인사람이며, 역시 조선 후기, 서학(西學)이라 불리며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가톨릭의 첫 사제 김대건 신부가 ‘용인사람’이다.

1) 동방이학의 시조, 포은 정몽주 선생

1392년 건국되어 518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유지해 온 조선의 국시(國是)는 성리학이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예치와 법치가 조화를 이룬 통치 구조는 중국은 물론, 서양의 왕정이나 그 어느 정치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었다.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 유학자 주희가 정립한 주자학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안향이 주자학을 들여와 깊이 연구하였고 이제현이나 목은 이색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목은 이색의 영향을 받은 포은 정몽주는 주자학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오부학당과 향교를 세워 널리 보급하는 데 공헌했다. 또한 예(禮)를 대중에 전파하기 위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가묘(家廟)를 세우고 신주(神主)를 처음 세웠다. 고려에 성리학의 기초를 세우고 그 명분을 지키며 죽었기 때문에, '동방이학지조(東方理學之祖)'로 추앙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주자학자들인 기대승, 김장생, 송시열 등은 정몽주를 한국 유학의 비조로 꼽을 정도로 많은 유학자들의 신뢰를 받은 인물이다.

물론 철학 외에도 외교적인 분야에서 그가 이룩한 업적은 실로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명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고려가 이들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데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했고, 이성계의 휘하에서 왜구 토벌에 참전한 적도 있었다.

정몽주는 비록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는 유학적 대의명분으로 죽음을 선택했고, 그의 죽음과 함께 고려는 멸망했지만 그가 깊이 연구했으며, 그가 신봉했던 성리학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왕조 500년의 통치 이념이 되었으며,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포은 정몽주 선생의 유택은 모현읍 능원리에 있고 그의 충혼을 기리는 사당인 충렬서원이 후세들에게

지고한 학문적 자취와 학풍을 전수하고 있다.

2)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 선생

300여 년 동안 조선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유지되어 온 성리학이 오랜 시간이 지나며 본래의 모습들이 변질되거나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자 17세기에 이르러 실사구시 학문, 즉 실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조가 되는 인물이 반계 유형원 선생이다.

반계 유형원 선생은 유교를 금과옥조로 여기던 시대에 태어나 유교적 전통을 중히 여기는 집안에서 자랐다. 그의 출생과 성장 환경을 보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당대 사회 권력의 핵심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선생은 보장된 관직이나 출세의 길을 모두 거부하고 전라도 부안 땅 초야에 묻혀 평생을 살았다.

그곳에서 1만여 권의 서책을 쌓아놓고 학문을 연구하고 글을 쓰면서 모든 시간과 정열을 바쳤다. 당대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이자 사상이었던 주자학의 원리를 신봉하면서도 정작 제도권 안에 안주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유형원 선생은 왜 관직 생활을 거부하고 초야에 묻혀 살았던 것일까? 무엇보다도 벼슬에 나가는 사람들이 오직 세속을 쫓는 데 급급하여 세상을 바로 세우지 않으니 민생의 재앙이 끝이 없음을 한탄하였기 때문이다. 또 당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평생을 두고 고민하였다.

그리하여 전란으로 인한 파괴와 좌절, 파생된 수많은 사회적 모순, 전반적 경제침체, 집권 체제의 동요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연구에 몰두하며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저작이 바로 유명한 「반계수록(澗溪叢錄)」이다. 부민(富民)·부국(富國)을 이루기 위한 국가체제의 개혁안인 『반계수록(澗溪叢錄)』을 저술하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것이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문벌 있는 집안의 선비였음에도 스스로 초야에 묻혀 학자의 길을 걸었던 반계 유형원 선생의 개혁사상은 조선 후기에 와서 커다란 맥을 이루어 이익, 이중환, 정약용, 박제가, 안정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선후기 실학의 여명이 되었던 것이다.

그 반계 유형원 선생은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에 묘역이 마련되어 있으며, 뜻있는 지역 사람들이 <반계 숭모사업회>를 결성하여 선생을 선양하고 있다.

3.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

한국 최초의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는 1821년에 태어났다.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은 공식적으로 충남 당진 솔피이지만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문헌 기록은 없다. 오히려 김대건이 체포되어 죽음을 앞두고 좌우포청에 진술한 공초문에는 스스로 ‘용인 사람’이고 ‘용인에서 태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일성록(日省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용인에서 아버지 김제준 아냐시오와 어머니 장흥

고씨 우르술라 사이에서 태어난 김대건 신부는 순조 21년(1821)부터 헌종 12년(1846)까지 격랑의 조선 말기를 살았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신심이 깊었던 그는 은이공소에서 세례를 받아 안드레아가 되었다. 유년 시절은 비교적 평탄했지만, 열다섯 살인 1836년 프랑스 선교사 모방 신부에 의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최양업과 최방제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길을 떠난다. 공부를 마치고 1845년 8월 조선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고 1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다.

김대건 신부는 용인과 안성, 이천 등 서울 인근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미사와 성사를 집전한다.

1846년 5월 중국에 남아 있는 최양업 부제와 매스트르 신부 등의 귀국을 돕기 위해 황해도 순위도라는 섬에 갔다가 포졸에게 체포된다. 신부는 해주 감영, 서울 포도청 등에서 104일간의 폭언과 구타와 고문을 당하다가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목을 베고 군대 정문에 걸어두는 것)로 순교한다.

지난 2021년 유네스코는 김대건 신부를 ‘올해의 기념 인물’로 선정하였고, 한국 교회 또한 희년(禧年)을 선포하여 그분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처럼 김대건 신부는 성리학이라는 굳건한 통치 이념을 구가하던 조선 사회에 서구 철학이며 종교사상인 가톨릭의 씨앗을 뿌린 인물로서 한국 정신문화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Ⅲ. 맺는말-소통의 도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인에는 지역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요소들을 다양한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지리적 측면, 산업적 측면, 그리고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정체성을 끌어내고자 했는데, 글을 쓰면서 용인의 지역적 특성을 집약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 '소통의 도시'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지리적 측면에서 용인의 길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길목 역할을 해왔듯이 길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물자의 이동을 연결해 주는 통로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길이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현대에 이르러 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길을 생각해 보면, 길은 나를 다른 사람의 세계로 이끌고, 잠시 머물 수 있지만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길은 모습이 어떠하든지 소통이 주요 목적이며, 장소와 장소, 지점과 지점, 집과 집,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고독한 집에 머물

던 나를 세상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도자기도 1천 년의 간극을 두고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흙과 모래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반도체의 특성상 회로를 통해 정보와 정보를 이어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신문화적 측면에서도 성리학과 실학, 가톨릭이 각각 다른 가치관과 철학을 기반으로 탄생하거나 전래되었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시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과거와 소통하는 통합적 사고를 통해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사상적 원류로서 깊이 연구하고 선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용인시에서 내세우고 있는 도시 브랜드가 '르네상스 용인'이다. 르네상스라는 용어가 역사적 문화 복원 운동이었음을 상기할 때 '르네상스 용인'은 용인의 역사문화와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즉 용인의 정체성을 도시 브랜드에 담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겠다.

지역 문화예술, 치유와 성장의 주역으로 (문화예술 실태와 현안을 중심으로)

최현석 _ 용인예총 사무국장
도서출판 다남 대표 역임
용인신문 및 용인시민신문 기자 역임
한국예총 정책법제소위원회 위원 역임

1. 좌절과 증오, 양극화 부작용에 경고등

우울증·불안장애의 폭발적 증가, 자살률 세계 1위 국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울증 환자수가 93만3481명에 달하고 2017년 대비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여겨 볼 사항은 20대 환자가 17만7166명에 이르고 전체 환자의 19%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2017년 대비 127.1%가 늘어난 수치이며 연평균 2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불안장애 환자 역시 2021년 기준 86만5108명에 달하고 2017년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6만여 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 대비 증가율에서는 87%를 기록한 20대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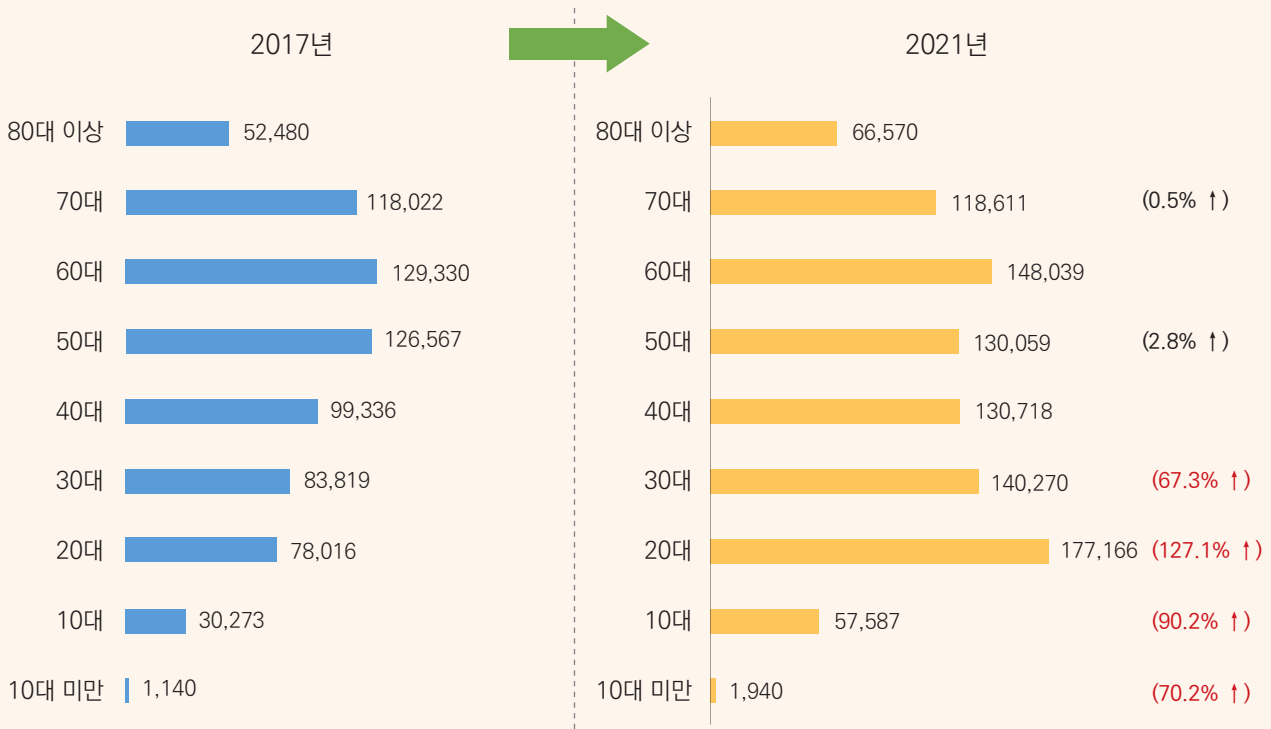
두 증상 모두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대와 10대의 증가율이 1,2위를 기록하는 등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3352명에 달해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0만 명당 자살자 수¹⁾ 23.6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11.1명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발생한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²⁾로 결론이 났다. 여성과 노인

1) OECD 표준인구 적용

2)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 △현실불만형 :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처지를 비관해 막연한 적대감을 가진 경우. △정신장애형 : 주로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가 있거나 약물·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 △만성분노형 :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분풀이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재미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주폭이나



▲ 2017년 및 2021년 10세 단위별 우울증 환자수 현황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문지마 범죄는 매년 50여 건씩³⁾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로 인한 사회적 증오와 분노, 정신질환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밖에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 빈곤과 질병 및 사회·심리적 고립 등 각종 사회영역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서 기인한 여러 질병과 사회적 문제들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고민거리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세계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지경이 되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치유와 회복을 돕는 문화예술의 잠재력

질병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의 효능

사람들은 일찍이 문화예술이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삶에 풍요를 더해준다고 믿고 있었다. 이 같은 믿음은 WHO(세계보건기구)를 통해 구체적 사실로 확인됐

상습 폭력범도 여기 해당하며, 주취 상태이거나 환각제를 사용한 상태일 때가 많다.

3) 범죄기소 건수 (대검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7)

는데, 보고서⁴⁾에 따르면 20여 년간 발표된 연구 및 출판물을 조사한 결과 3천 개 이상의 보고서에서 예술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과 질병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일부 질병에서는 약물이나 운동보다 예술의 활용이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고 더 큰 비용 효율성을 보여주는 경제적 이점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층의 예술참여는 노화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의료비용을 줄이고 입원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정서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WHO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건강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의료전문인은 치료에 예술 프로그램을 결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공존하고 성장하는 지역사회

우리나라 역시 치료와 치유에 대한 문화예술의 잠재력에 대해 눈을 뜨지 오래이며, 최근에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지역사회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들의 경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특징적인 유형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유형으로 소외계층 및 서민 거주지 중심지역에 예술교육장과 공연·전시장 등 소규모 예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예술인의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함으로써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의 경우다.

두 번째 유형은 청년 사회적기업과 마을 단위의 지역공동체간 협약을 통해 교육, 생산, 판매를 아우르

는 청년 주도형 문화예술마켓을 조성한 후 이를 거점으로 동네방네콘서트, 스마트폰영화제, 인문학초대석 등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도시들이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시니어 바우처 사업의 일환인 노인 빈곤층의 문화누리카드 이용 지원을 통해 한국 무용·사교댄스·노래교실·미술강좌 수강과 공연·전시 관람 등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질병과 사회적 고립의 예방 및 완화를 도모하는 노인 돌봄형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들이다.

3. 지역문화예술의 실태와 현안

문화예술의 양극화, 출구는 짙은 안개 속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환경은 치유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인가. 스타 예술인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만나는 예술인들, 즉 우리의 가족과 친구 또는 이웃이기도 한 전업예술인들이 마주하는 문화예술 환경은 안타깝게도 치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연평균 소득 980만원, 월평균 소득 81만6천원.⁵⁾ 오늘날 전업예술인이 처한 현실이 계량화된 수치다. 문화예술 영역의 특성상 활동 기회가 일정치 않아 고용 자체가 불안정하고 활동 대가가 턱없이 적다. 예술활동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부업에 매달리다 결국 예술 활동을 포기하

4) What is the evidence on the role of the arts in improving health and well-being? _ Health Evidence Network 종합 보고서, No. 67 _ Daisy Fancourt and Saoirse Finn (WHO 유럽지역사무소 2019발행)

5) 예술인 소득 및 계약 현황 설문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0) : [월평균 소득] 문학 71만9천원, 미술 61만4천원, 국악및음악 65만8천원, 무용 56만8천원, 연극 79만8천원, 영화 106만원, 연예 139만3천원, 사진및건축 60만5천원, 만화 154만2천원



고 전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청·장년 전업예술인의 저변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반면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와 같은 평생학습기관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여가 활동으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중년층 및 노년층 예술 인구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와 생활문화예술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문화예술 학습 참여 및 현장 활동 욕구가 날로 높아감으로써 전시회 및 공연발표회 수요도 폭증하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지역마다 인프라 부족이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국내 문화예술 환경은 청·장년 전업예술인 저변 축소, 중·노년층 예술인구 확대라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역마다 버거운 현실들과 씨름하고 있는 중이다.

지지부진한 예산확보와 열악한 인프라

이제 용인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버거운 현실은 무엇이고 그 버거움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예술인의 처지에 대한 증언부언은 생략하고 지역의 시선으로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거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원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은 공공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없으면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산 추이를 보면, 지난 2011년을 전후해 내리막길을 걸어왔으며 그 이후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중재재판 패소에 따른 용인경전철 사업비



및 손해배상금 지급과 역북지구개발사업 부채 상환 등으로 용인시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그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바로 문화예술 분야라 할 수 있다. 용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지만 문화예술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라는 후진적 사고 때문에 우선적 삭감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긴축'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용인시 예산 부서는 '신규사업 불가' '예산 동결'이란 말을 앵무새 처럼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

그 다음의 버거움은 열악한 문화예술 인프라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낙후된 인식과 상황 속에서 용인시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를 입에 올리는 것이 공허한 외침은 아닌지 모르겠다. 완성도 높은 대작이나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최소한 1500석 이상의 공연장이 필요한데, 우리 용인시를 대표하는 포은아트홀은 1000석을 갖 넘기는 수준이다. 게다가 시민들의 폭증하는 전시 활동 수요를 감당할 전시시설은 더욱 부족하다. 시립미술관 자체가 없고 공연장에 딸린 협소한 전시장 두 곳과 민간이 운영하는 영세한 미술관 서너 군데가 전부인 형편이다. 또한 전업예술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기량 향상을 위한 상설 소극장이나, 임대료 부담을 잊고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레지던시 작업공간 등도 전무한 상황이다.

인구 110만을 넘어 120만을 바라보고 있는 특례시 위상에 비춰 볼 때, 매우 초라한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연장만 놓고 보면 4개 특례시중에서는 당연히 최하위이고⁶⁾ 이웃 성남시나 지방의 중소도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의 문화예술 인프

라를 가지고는 수도권 중심도시나 대한민국 핵심도시니 하는 말들은 허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타산지석의 인프라 구축 성공 사례

여기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우리 용인시가 참고할 만한 몇몇 도시의 사례를 소개해 본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뛰어난 추진력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인프라 구축에 성공을 거둔 사례들 중 일부이다.

먼저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 노력으로 공공인프라 확충에 성공한 수원시립미술관의 사례를 살펴보자. 수원시는 협소한 수원시미술전시관으로 버텨오던 중 화성행궁 복원사업을 기회로 2012년 건립추진위가 발족되어 여론이 형성되면서 기업메세나 형식의 건립이 추진되었다. 2012년 현대산업개발과 300억원 기부채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2월 착공, 1년 8개월만인 2015년 10월에 개관함으로써 수원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울산시립미술관으로 광역시중에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다는 따가운 여론 속에 미술관 건립 공약이 탄생한 경우다. 2011년 건립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4년 건립예정 부지에서 조선시대 객사터가 발굴돼 부지 변경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당초 부지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 속에 객사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활용하여 2019년 착공, 2021년에 준공 및 개관한 사례다.

세 번째 사례는 순천만습지 및 국가정원의 경우다. 오늘날 인구 28만의 순천시는 1997년에 흑두루미 도

6) 도표 '4개 특례시 실내공연장 비교' 참조

래지와 갯벌 갈대숲을 지키기 위한 ‘동천하류 하도정비 및 골재채취 반대운동’이라는 강력한 환경 민원이 불거지면서 생태도시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습지 내에 있는 전봇대를 뽑고 구역 내의 기존 상점과 무허가 난전 등을 이전하고 철거하는 문제 등 많은 난관을 헤쳐 나온 끝에 습지와 정원을 완성시켰다. 그 결과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와 제1호 국가정원 타이틀이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고, 순천국가정원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한해에만 409만 명의 유료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지가 되었다.

10년 전 세미나에서 만났던 순천시 담당공무원이 생각한다. 매일 밤낮으로 정비지역에 나가 주민을 설득했다는 그도 지금은 퇴직했을 테지만, 호남 유일의 인구 증가 도시⁷⁾이자 전남 최대 도시로 성장한 순천의 오늘을 얼마나 뿌듯해 할지 짐작이 간다.

불과 3년 만에 미술관을 건립한 수원시를 거론하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금방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인프라 건설은 자금과 인력만 충분하면 해결되는 민간기업의 영리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공공인프라를 건설하려면 공론화 과정, 이해집단간의 이견 조정, 기타 장애물을 걷어내 가는 과정 등 법에 따른 절차와 형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수원 울산 순천의 예와 같이 성공한 사업들도 하루아침에, 쉽사리 된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도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예술 인프라 건설을 논의하고 주도할 기구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7) 2020년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KOSIS, 행정안전부)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가 관건

그렇다면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어렵게 하는 세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원의 일관성과 추진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화예술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민선시장의 권한과 영향력은 그 누구보다 크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기 힘든 문화예술의 특성상 시장의 확고하고 일관된 지원 의지와 장기적 추진 동력이 그 어떤 분야보다 간절히 요구된다.

그러나 민선8기를 맞이하는 동안 용인시에서는 한 번도 재선시장이 탄생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문화예술정책이 8명의 시장을 통해 8번의 변화를 겪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전임 시장이나 역대 시장의 정책을 이어받아 착실히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자신의 임기 내에 수립한 새로운 정책으로 남다른 업적의 재선 시장이 되고자 변경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책관리자의 잦은 교체에 있다. 지난 20년간 용인시 문화예술 주무 부서장이 20명이나 교체됐다.⁸⁾ 그 중엔 6개월 이하 근무자도 4명이나 된다. 6급 이하 실무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관련 기관·단체의 업무 파트너 얼굴도 익히기 전에 떠나가는 현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었던 것이다. 업무파악 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정

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책연구와 전문성 배양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 로드맵이나 증장기계획의 부재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이 처럼 용인시 문화예술 주무부서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적 손실과 행정효율의 저하는 인사시스템의 점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4. 문화도시의 열매 맺는 민선8기를 기대

용인예총을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계는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진흥정책에 대한 현안과 숙원을 전달해왔고 다수의 당선자들이 공약에 반영하거나 공개적으로 추진의지를 표명하곤 했다. 그러나 대부분 선언적 구호에 불과했으며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장기 과제로 방치되기 일쑤였다.

이번 민선8기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문화도시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기했던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안과 숙원사업을 정리 전달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역 문화예술의 현안과 숙원사업

-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를 위해 범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과 증장기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또한 활력 있는 문화도시 조성 과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그 중심점

이 되어줄 예술 플랫폼으로서 상설 소극장, 소전시장, 레지던시 작업장 등 마을 속에 위치한 생활예술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시가 운영하는 공연·전시장의 대관료 인하 또는 감면율 상향 조정을 통해 예술계의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대시설사용료 및 스태프인건비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사업 외 공익활동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에게 사회적 기여의 창을 열어주길 바란다.
- 정책수립과 행사기획, 예산수립과 집행 등의 과정에서 문화예술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예술 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길 바라며, 생계 곤란으로 예술을 포기하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예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인시예술인복지지원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 시 재정악화 시기에 대폭 감액된 문화예술단체 예산을 시급히 복원시켜 주고 창작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주길 요청한다.
- 보조사업 심의와 수상자 선발 등 각종 심의기구에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가 보장되길 바라며, 서류평가에 의존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기구 구성을 지양하고 용인의 현실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심도 있는 평가 방식으로 전환되길 희망한다.

4개 특례시 실내 공연장 비교

※ 인구수 : 2023. 5월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행정안전부 자료, 외국인 제외)

| 구 분 (인구수) | 대극장 | | 중극장 | | 소극장 | |
|---------------|--------------|--------|--------------|-----|------------|-----|
| | 극장명 | 객석수 | 극장명 | 객석수 | 극장명 | 객석수 |
| 용인시 (107만) | 포은아트홀 | 1,185 | 처인홀 | 626 | 마루홀 | 290 |
| | | | 큰어울마당 | 605 | | |
| 수원시 (119만) |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1,541 | 수원SK아트리움 | 950 | 수원SK아트리움 | 300 |
| | | |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502 | 수원시민회관 | 376 |
| 고양시 (107만) | 아람극장 | 1,887 | | | 별모래극장 | 366 |
| | 아람음악당 | 1,449 | | | 새라새극장 | 304 |
| | 어울림극장 | 1,290 | | | | |
| 창원시 (101만) | 성산아트홀 대극장 | 1,700 | 성산아트홀 소극장 | 510 | 진해문화센터 공연장 | 395 |
| | 3.15아트센터 대극장 | 1,182 | 3.15아트센터 소극장 | 463 | | |
| 기 타 | 성남시 (92만) | 오페라하우스 | 1,808 | | 양상블시어터 | 378 |
| | | 콘서트홀 | 1,102 | | | |
| | 경기도 | | 경기도국악당(기흥) | 426 | | |

용인의 비지정문화재

구성 마북동이 용인의 옛 중심지임을 알려주는 마북동 비석군

한재동 _ 용인문화유산 해설사

문화재(文化財, cultural assets)의 사전적 의미는 문화활동에 의하여 창조되어 그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유형, 무형의 축적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고고학, 역사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물이며 또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문화재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우리 용인시에 관련된 지정문화재 종류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경기도 지정문화재, 용인시 향토문화재가 있다. 문화재청·경기도청·용인시청 누리집 등에 의하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용인의 지정문화재는 총 189건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67건, 경기도 지정문화재 62건, 용인시 향토문화재 60건이다. (표 1. 용인시의 지정문화재 현황 참조)

이번 호에서 소개할 ‘마북동 비석군’은 과월 호에서 소개한 윤섬·윤계 정려(문화도시 용인 2022년 상반기 Vol. 60)와 허엽 신도비(문화도시 용인 2022년 하반기 Vol. 61)와 더불어 용인의 비지정문화재이다.

표 1. 용인시의 지정문화재 현황(2023년 5월 기준)

| 계(건) | 국가지정 문화재 | | 경기도 지정문화재 | | 용인시 향토문화재 | |
|------|----------|----|-----------|-------|-----------|----|
| 189 | 67 | | 62 | | 60 | |
| | 국보 | 4 | 유형문화재 | 24 | 향토유적 | 56 |
| | 보물 | 38 | 무형문화재 | 4 | | |
| | 사적 | 4 | 기념물 | 13 | | |
| | 국가무형 | 3 | 민속문화재 | 3 | 향토민속 | 4 |
| | 국가민속 | 13 | | 3 | | |
| | 국가등록 | 5 | | 문화재자료 | | |

‘마북동 비석군’은 그림 1. 마북동 비석군 지도와 그림 2. 마북동 비석군 위성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초등학교와 구성삼거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마북동 비석군 지도



그림 2. 마북동 비석군 위성영상

마북동 비석군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30-1번지에 소재하며, 비지정문화재인 마북동 비석군의 바로 북쪽에는 지정문화재인 용인시 향토유적 제52호 ‘마북동 석불입상과 석탑’이 인접하고 있다. 마북동 비석군은 총 14기의 비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른쪽 맨 앞에 있는 비석(효자 한량 김사철 비)을 제외하고 모두 조선 시대 지방관들의 선정비이다. 善政碑란 선정을 베푼 관원을 표창하고 그 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석으로 불망비 혹은 영세불망비와 같은 의미이다. 이 선정비들은 조선 숙종~고종 시대에 현령을 지낸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관찰사 등이다.

그림 3. 마북동 비석군 전경



오른쪽 맨 앞에 있는 비석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 마북동 비석군 배치도 참조)

- ① 효자 한량 김해 김사철지리 ; '본관이 김해이고 신분이 閑良인 효자 김사철의 마을'이라는 의미(용인시사)
- ② 현령 유공봉휘 청덕애민선정비 ; 유봉휘는 숙종 29년(1703) 8월부터 숙종 31년(1705) 2월까지 용인현령으로 재임(승정원일기), 이 비는 숙종 31년(1705) 11월에 건립
- ③ 행 현령 박후용민 청간선정비 ; 박용민은 고종 4년(1867) 2월부터 고종 6년(1869) 9월까지 용인현령으로 재임. 이 비는 고종 6년(1869) 3월에 건립
- ④ 행 현령 최공석두 영세불망비 ; 최석두는 고종 22년(1885) 12월부터 고종 24년(1887) 10월까지 용인현령으로 재임. 이 비는 고종 25년(1888) 4월에 건립
- ⑤ 선혜당상 민공영준 영세불망비 ; 민영준은 고종 30년(1893)에 내무부 독판, 선혜청 당상관 등을 겸직. 이 비는 고종 30년(1893) 2월에 건립
- ⑥ 현령 김공이중 애민선정비 ; 김이중은 정조 6년(1782) 8월부터 정조 7년(1783) 6월까지 용인 현령으로 재임. 이 비는 정조 10년(1786) 9월에 건립
- ⑦ 행 현령 박공응중 영세불망비 ; 박응중은 고종 20년(1883) 5월부터 고종 22년(1885) 12월까지 용인현령으로 재임. 이 비는 고종 21년(1884) 6월에 건립
- ⑧ 관찰사 김공홍집 영세불망비 ; 김홍집은 고종 19년(1882) 10월부터 고종 20년(1883) 7월까지 경기도 관찰사로 재임. 이 비는 고종 21년(1884) 6월에 건립
- ⑨ 현령 서공명균 청덕애민선정비 ; 서명균은 숙종 42년(1716) 11월부터 숙종 43년(1717) 7월까지 용인현령으로 재임. 이 비는 경종 원년(1721) 5월에 건립
- ⑩ 행 군수 김후영한 애민선정비 ; 김영한은 고종 광무 5년(1901) 9월부터 고종 광무 6년(1902) 1월까지 용인 군수로 재임(일성록). 이 비는 고종 광무 7년(1903) 2월에 건립
- ⑪ 현령 심공존지 홀민선정비 ; 심존지는 순조 19년(1819) 9월부터 순조 20년(1820) 2월까지 용인현령으로 재임. 이 비는 순조 21년(1821) 12월에 건립



그림 4. 마북동 비석군 배치도

- ⑫ 현령 이후원일 청덕선정비 ; 이원일은 현종 15년(1849) 8월부터 철종 4년(1853) 6월까지 용인현령으로 재임(용인시사). 이 비는 철종 2년(1851) 12월에 건립
- ⑬ 현령 홍후현보 선정비 ; 홍현보는 고종 12년(1875) 12월부터 고종 16년(1879) 3월까지 용인현령으로 재임(용인시사). 이 비는 고종 16년(1879) 2월에 건립
- ⑭ 행 현령 윤공태국 청간선정비 ; 윤태국은 정조 3년(1779) 7월부터 정조 6년(1782) 7월까지 용인현령으로 재임. 이 비는 정조 10년(1786) 2월에 건립

재임당시의 업적과 덕망을 기리는 조선시대의 수많은 영세불망비는 실제의 내용이 부합되는 경우는 불과 20%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마북동의 비석군에는 민영준의 영세불망비도 잘 보존되어 있었다. 비석 뒤쪽에는 계사년(1893년) 2월에 세운 것으로 쓰여 있다. 나라의 곳간지기인 선혜청친일파의 거두였던 민영준의 영세불망비의 진실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만, 마북동이 용인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주는 점에서는 단단하게 한 몫을 하고 있다.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용인은 수많은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구성마북지역 또한 이에 뒤질 세라 다양한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보호받고 유지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인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88호), 연안부부인 전씨묘(용인시 향토유적 제18호), 마북동 석불입상과 석탑(용인시 향토유적 제52호), 장욱진 고택(국가등록문화재 제404호) 및 계정 민영환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18호)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성마북지역이 옛 용인의 중심지였음을 말없이 웅변하고 있는 마북동 비석군은 국가는 물론 지자체로부터 보호는커녕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마북동 비석군이 위치한 인근 식당가에서 배출한 쓰레기 봉투가 마북동 비석군 바로 옆에 항상 쌓여 있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마북동 비석군이 빠른 시일에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길 염원해 본다.



그림 5. 민영준영세불망비

용인의 다섯 효자 이야기

김도영 _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효 축제 및 생거진천 사거용인 유래비 제막식’이 2023년 4월 22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에 있는 오효자 정려각에서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오효자는 전주 최씨 문중이 배출한 최유경(崔有慶), 최사위(崔士威), 최사립(崔斯立), 최덕린(崔德麟), 최덕순(崔德詢) 다섯 효자를 말하며 나라에서는 이들의 효행을 기려 정려를 내렸다. 정려(旌閭)는 국가에서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자·충신·열녀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풍습으로 신라 때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어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사회적 신분의 고하, 귀천, 남녀를 막론하고 효·충·열의 행적이 있는 자에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표하였다.





다례봉행 제례

이날의 행사는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오효자 정려각 앞에서 다례봉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초헌관으로 최종수 성균관장, 아헌관으로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종헌관으로 권석주 양지향교 전교가 각각 맡았다. 이후 '생거진천 사거용인 유래비 제막식'이 이어졌다.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본(根本)

1434년 조선의 세종 임금의 백성들에게 유교의 도덕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을 만들라 명을 하였다. 그 명에 따라 만들어진 책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이다. 삼강(三綱)이란 유교 도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을 뜻하며 임금과 신하 사이, 부모와 자식 사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이렇게 발행된 『삼강행실도』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효자, 충신, 열녀 330명의 사례를 모아 그들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풀어 설명하였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인 1481년 성종 임금 때에는 『삼강행실도 언해본(諺解本)』을 발행하였는데 각각의 사례 중에 35개씩 가려내어 105인을 실었으며 본문의 상단 여백에 한글 번역을 추가하여 조선시대의 지배 철학인 유교 사상을 실제 사건과 인물들의 행적을 담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삼강행실도』는 이후 선조 임금대에 중간(重刊)된 후 지속적으로 간행되고 보급되었으며 후에 편찬된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등의 바탕이 되었으며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를 넘어 글을



생거진천 사거용인 제막식

모르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한 조선시대의 윤리·도덕 교과서였다.

또 이를 장려하는 것을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 역대 왕들은 즉위하면 반드시 충신, 효자, 의부, 절부에 대해 각 지방에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하고 집집이 부과하는 부역을 면제하거나 그 행적에 따라 관직이나 관품을 제수하고 상으로 물품을 내리기도 하였다.

‘효(孝)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여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가정 윤리(倫理)를 소중히 여겨왔다. 가정이 바로 서야 비로소 사회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면서도 ‘효자 가문에서 충신 난다.’ 또 ‘충과 효는 손의 양면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충(忠)과 함께 효(孝)를 중요시 했음을 알 수 있다.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 - 전주 최씨 최 유경 가문의 오효자(五孝子) 이야기

전 용인문화원 원장을 역임했던 이인영 선생은 용인 관내 충·효·열의 행적을 추적하여 찾은 기록을 편집하고 문헌에 있는 원문을 번역하여 수록한 ‘효제충

신의 고장 용인, 삼강행실록'를 2017년 발행하였다. 이 저서를 참고하면 용인지역은 예로부터 효를 실천한 효자가 참으로 많았던 고장임이 틀림없다. 여기에 소개되는 용인의 효자는 모두 55명으로 나라로부터 효자비, 효자 정문, 효자 정려를 받은 인물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관직이나 관품을 제수받아 증직된 인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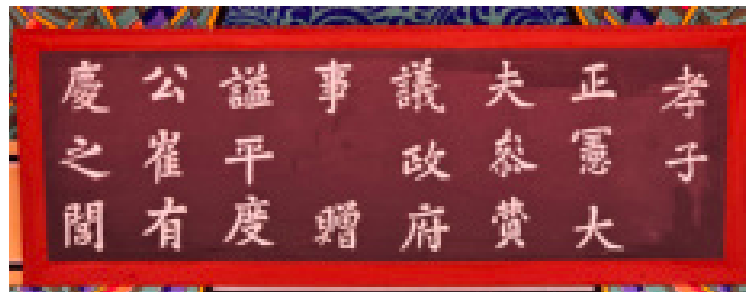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는 말이 있다. 이 책에 소개된 효자들 중 다섯명의 효자가 평도공 죽정 최유경과 그 후손들로 모두 한 집안 출신이다. 특히 전주 최씨 오효자 중 고려 말, 조선 초 문신인 평도공 죽정 최유경과 그의 아들인 장남 최사위는 진천에서 살다 사후 용인 기흥구 공세리에 묻혀 ‘생거진천 사거용인’의 유래가 된 중요 인물이다. 평도공(平度公) 죽정 최유경과 그의 큰아들인 판윤공(判尹公) 최사위와 더불어 현재 용인에 묘가 있는 최사립, 최덕린, 최덕순 다섯 효자의 이야기를 풀어보자.

최유경(崔有慶 - 1343~1413)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경지(慶之), 호는 죽정(竹亭), 시호는 평도(平度)로 전주 최씨 시조인 문열공(文烈公) 최순작(崔純爵)의 8세손이다. 1392년 조선을 개국할 때 개국을 도와 개국원종공신이 되었으며 태조 재위 동안 경상도 도관찰사·경기 충청도 도체찰사·증추원사·경기우도 도관찰출척사·참찬의정부사등을 역임하였다.

죽정 최유경은 조선 초기 최고의 건축전문가로서 1388년 전라도 도관찰사로 있을 때 전주부성과 풍남문 공사를 지휘하였으며 1396년 판도성영축도감사가 되어 한양도성은 물론 현 대한민국 국보 1호



죽정 최유경 묘소 (공세동)



죽정 최유경 효자 정려 현판



효렴사의 삼문 창덕문 (공세동)

인 승례문 축성의 총책을 맡았다. 이는 1962년 승례문 해체·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승례문상량문>에 ‘홍무이십구년병자십월초지일상량(洪武二十九年丙子十月初之日上樑)’으로 시작하는 목서명이 발견되었으며 공사 관계자의 명단에는 ‘판사 가정대부 증추원사 최유경...’이라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평소 효성이 지극하였고 청렴 강직하였던 죽정 최유경은 백성에게는 인자하였으나 권신에게는 굴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이었다고 한다. 낙향 후 부모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애통하며 6년간의 시묘살이를 하였다. 시묘를 마치자 최유경의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세종 임금은 효자로 표정하여 정문(旌門)을 세

우게 하였다. 효자에게 정문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 세종 때부터였다는 기록에 미루어볼 때 최유경은 용인의 효자 인물로 가장 오래되었거나 용인 연고자 중에서 효자로 명정된 최초의 인물로 손꼽을 수 있다. (‘효제충신의 고장 용인 삼강행실록’에서 글 인용)

최유경은 본래 청원군에서 태어났으며 관직을 떠나 진천군 초평면 죽정리에 거주하다가 세상을 마쳤으며 아들 사위(士威)에 의해 임금이 하사한 사패지(賜牌地)인 용인 자봉산(현 공세리)에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냈다. 그의 묘소와 사당은 기흥구 공세동 자봉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당인 ‘효렴사(孝廉祠)’는 최유경의 인품을 잘 드러내는 ‘효성과 청렴’의 앞 뒷글자를 합쳐 지었고 ‘청백리 최유경의 덕을 밝힌다.’

는 의미에서 사당의 삼문을 ‘창덕문(彰德門)’이라 하였다. 그의 효행을 기리고자 충북 청주시와 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지에 효자정문이 세워졌으며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소재 ‘진천 효자문’에는 최유경과 최사흥 부자의 현판이 함께 보존되어 있다.

최사위(崔士威 - 1362~1449)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고려 말·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평도공 죽정 최유경의 큰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다고 하며 아버지 평도공의 충과 효를 본받아 식견과 사려가 깊고 예와 덕이 높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한다.



판윤공 최사위의 유언하는 장면



판윤공 최사위 효자 정려 현판



판윤공 최사위 묘소(공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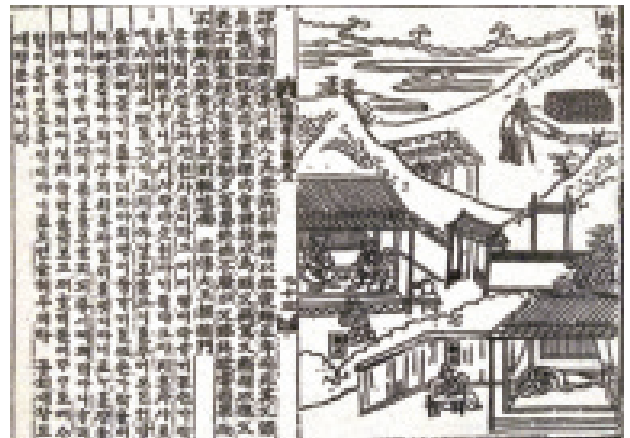
풍해도(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부모같이 따랐고 임기를 마치고 이임할 때는 부모를 잃은 듯 생각하며 고을 백성들이 공이 끼친 애민선치(愛民善治)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거사비(去思碑)를 세워 칭송하는 글을 남겼으며 후세에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예를 갖추어 마치 큰 어른을 대하는 것같이 정중하였다고 한다.

한성부 판윤 등의 관직에도 있었으며 부친이 타계 하자 용인의 자봉산에 장사지내고 그 옆에 여막을 짓고 상기(喪期)를 마칠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곡배를 하며 시묘(侍墓)살이를 했다. 그러던 중 어느 해에는 가뭄이 몹시 들어 아버지 최유경의 묘역에 풀이 마르자 산 아래에 작은 연못을 파고 손수 그 물을 길어다 묘역에 뿌려 가뭄에도 묘역의 풀이 마르지 않고 무성하게 되었으며 토끼나 노루와 같은 들짐승도 최사위의 효성을 알고 근처의 풀을 뜯지 아니하였다고 전한다. 후손들은 최사위가 물을 길었던 자리에 연못을 만들고 '백련지(白蓮池)'라 하였다.

또 자손들에게 “나 죽으면 내 생전에 시묘하던 이

자리에 묘를 쓰라. 내 죽어서라도 생전과 같이 이곳에서 부친을 위해 시묘코자 하는 뜻이라.”라고 유언하였으며 유언에 따라 기흥구 공세동 자봉산 아버지 최유경의 묘소 아래 묻혔다. 최사위를 생전에 효자로 추천하였으나 “불초(不肖)가 어찌 부친과 같은 표정(表旌)을 바라겠는가.”하여 사후에 효자 정려문이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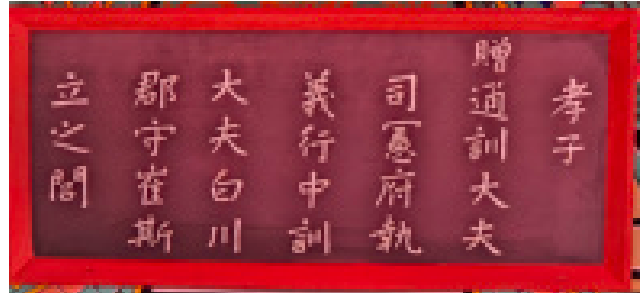
최사립(崔斯立 - 1505~ ?)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평도공 죽정 최유경의 6세손이며 한성부윤을 지낸



동국신속삼강행실록에 실린 사립의 효행



최사립의 묘(완장리)



최사립의 효자 정려 현판

최사위의 5세손으로 배천군수를 지냈으며 첨지중추부사 결(潔)의 아들이다. 사립은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송진으로 불을 밝히며 경서를 읽었고 항상 독서로 시간을 보내어 사립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소학』을 행위의 근본으로 삼아 부모 공경에 힘썼다.

특히 어머니의 병이 몹시 심해지자 손가락을 단지해 5년을 더 사시게 하였고 모친이 돌아가신 후 묘 앞에 초막을 짓고 살며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돌아가신 어머님께 드리는 끼니 제사 음식을 손수 올리는 일을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또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와 같이 하였다는 내용이 증종실록에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립의 행적은 선조 7년(1574년) 홍문관 관리들의 건의로 『동국신속삼강행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홀로 남은 부친을 기쁘게 하고자 친척 일가를 불러 모아 날마다 술과 고기를 대접하였으며 한겨울에 병석에 있는 부친이 “쫄팍을 먹으면 기운이 회복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밤낮으로 하늘에 치성을 드리니 하늘도 감동하였음인지 쫄이 소생하여 벽을 뚫고 덩굴이 무성히 뻗더니 꽃이 만발하게 되어 부친의 병이 완쾌되었다고 한다. 1618년 간행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그의 아버지가 임종할 적에 수박

을 드시고 싶어 하였으나 구할 수가 없었던 최사립은 생을 마칠 때까지 수박을 먹지 않았으며 수박을 보면 대번에 서글프게 애통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임금은 그의 효심을 크게 칭찬하여 증종 9년 참의(參議)로 추증하였다.

현재 '최사립효자정문'은 과천시 향토 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의 묘는 과천 막계리에 있었으나 과천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1979년 용인시 남사읍 완장리로 이장되었다.

최덕린(崔德麟 - 미상)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준경(峻卿)이다. 최유경의 7세손이며 배천군수 사립의 장남이다. 대대로 효성이 지극한 가문에서 출생하여 동생 덕순(德詢)과 함께 우애가 돈독하고 아버지를 모심에 극진하였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다하여 효행을 이어 받드는 예를 다함에 인조 대에 효자로 정려(旌閭)가 세워졌다. 벼슬은 통정대부 호조참의 행 조산대부 전함사(典艦司) 별좌(別坐)에 이르렀으며 정려는 아버지 사립, 동생인 덕순과 함께 효종 대에 세워진 충남 천원군 입정면 용정리에 전주 최씨 12효정에 보관되어 있다.

묘는 과천 막계리에 있었으나 신도시 개발로 1979년 용인시 남사읍 완장리로 이장되었다.

최덕순(崔德峯 - 미상)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탁경(卓卿)이다. 최 유경의 7세손이며 배천군수 사립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울러 효를 가업으로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형 덕린(德麟)과 함께 우애가 돈독하고 아버지를 모심에 극진하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효성을 가상히 여겨 여러 차례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벼슬길에 오르면 효를 다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거듭 사양하다 왕의 특지로 양천군수를 제수 받고 충주판관(忠州判官), 가평군수(加平郡守)를 거쳤다.

그는 임지에 부임할 때마다 백성을 다스리는데 정성을 다하여 치적을 쌓았으며 송사를 공정히 하고 병기 등을 수리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8년여에 걸쳐 임진왜란을 당하여서도 그가 다스린 마을만큼은 매년 조정에 공물을 바침에 누락됨이 없었으며 난이 평정되자 조정에서 그의 공적을 기려 김해 양양의 도호부에 제수하려 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였다.

중종 때 그의 효성으로 인해 승지(承旨)에 특별히 추증하고 정려(旌閭)가 세웠졌으며 부친 사립과 형 덕린의 정려와 함께 현재 충남 천안시 입정면 용정리에 소재한 전주 최씨 12효정에 보관되어 있다. 묘는 1979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로 이장되었다.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의 유래에서 찾은 인류의 아름다운 정신 문화 - 효(孝)

한때 용인하면 떠 오르는 말이 ‘생거진천 사거용인’이었다. 이 전래담에 근거한다면 ‘진천은 양택지로, 용인은 음택지로 가장 좋은 곳’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오래전부터 용인의 향토 사학자들은 ‘생거진천 사거용인’의 의미



효자 최덕린 묘비(완장리)



효자 최덕순 묘비(완장리)

를 규명하기 위하여 학술 행사를 개최하는가 하면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취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노력해 왔다. ‘생거진천 사거용인’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전래담을 수집하고 비교 연구한 결과 ‘살아서나 죽어서나 부친을 모시고자 했던 자식의 효행심에 근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주장은 학술대회를 통하여 크게 주목받았으며 ‘생거진천 사거용인’하고 ‘효행’을 실천했던 역사 속 주인공이 고려말, 조선 초 문신인 평도공 죽정 최유경과 그의 아들 최사위임을 밝혔다. 이 두 인물은 ‘생거진천 사거용인’하고 나라로부터 ‘효자’로 인정되어 정려(旌閭)를 받은 인물이며 이들로부터 ‘생거진천 사거용인’의 유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생거진천 사거용인’의 유래를 ‘살아서는

진천 땅이 좋고 용인은 죽어서 묻히기 좋은 땅’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가? 그렇게 인식된다면 용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효를 실천하는 방식은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 예전과 달리 많은 부분 변화해 왔다. 또 끊임없이 변화해 갈 것이다. 하지만 효(孝)는 인류가 영원히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정신 문화임에는 틀림없는 진리이다.

‘생거진천 사거용인’의 전래담은 인류가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정신문화인 효 사상에서 유래되었음을 꼭 기억하자. 그리고 ‘효의 고장 용인’에 살고 있는 시민임에 지금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져보자. 효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 효의 고장 용인에서.



백련지 (사진 제공 -최인태)

세대공감
(世代共感)

커피(coffee)

남기주 _ 용인문화원 이사/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대부분 커피 한잔으로 아침을 시작할 것이다. 모닝콜은 귀찮아도 모닝커피는 거부하지 못한다. ‘불타는 물’이라 불리는 술을 대적할 만한 음료로는 커피를 제외하면 아마도 없을 듯하다. 전래 초기에는 물 건너 온 서양 탕국 ‘양탕국(洋湯國)’이라 부르기도 했고, 심지어는 ‘양코배기 탄 콩물’이라고도 했다. 어느 도시에서는 초기풍속을 닮은 대접 커피가 유행하기도 한다. 필자도 마셔온지 어언 40년인데 명정(醜酌)40년 보다는 나을까. 소통을 위한 액체는 대개 두 가지 인데 아침엔 커피요 저녁엔 술(소주)이다. 쓰다는 공통분모가 있기는 하다. 애호가들은 커피는 성수(聖水)요 생명수로 표현하는데,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커피의 확산 속도는 대단하다. 즐기는 사람에게는 그저 단순한 기호품이요, 사업자는 이윤추구로, 생산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생산물에 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확시 가혹한 노동착취가 숨어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시대별,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 될 수 도 있기에 커피는 장광설(長廣舌)을 낳게 된다.

우스이 류이치로의 <세계사를 바꾼 커피이야기>에 의하면 커피의 기원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전제를 달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9세기 무렵 에티오피아의 산양치기 칼디(kaldi)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칼디가 새 목초지를 찾아 산양 무리를 몰고 갔다가 어둑어둑한 저녁녘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한데 웬일인지 낮 동안 배가 부르도록 실컷 풀을 뜯어 먹은 양들이 흥분한 채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당황한 칼디는 고민 끝에 가까운 수도원의 스키아들리(Sciadli)수도원장을 찾아갔다. 수도원장은 다방면에 지식이 풍부하고 날카로운 관찰력과 논리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여러 날 동안 면밀한 조사를 거쳐 산양들이 어느 작은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일어난 사태라는 것을 밝혀낸다. 수도권장은 호기심을 발동해 그 열매를 잔뜩 따다가 온갖 실험을 해보았다. 급기야 그걸 물에 넣고 끓여서 마셔보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없었고 밤새도록 침상에서 궁싯거리던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젊은 수도사들에게 그 음료를 먹여보자는 생각이었다. 수도원에서는 밤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 수도사들이 있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수도권장은 크게 기뻐하여 저녁예배 때마다 그 음료를 마시게 했다.”

그러나 전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원래 스토리에 이런저런 살이 붙으며 조금씩 다른 이야기로 변형되어 전해짐을 작가는 지적하고 있다.



45번 국도변 커피점

최초의 카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앞에 문을 연, 카페 페니로 커피 한 잔이 1페니라 그렇게 붙였다 한다. 유대인이었던 제이콥스가 열었고 이때가 1652년이다. 그리고 250년이 흐른뒤 1902년 서울 손탁호텔에 있던 커피숍이 우리나라 최초의 카페로 전한다. 그전에,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처형인 손탁은 1896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공사관에 있던 고종(1852-1919)에게 커피를 진상하여 신임을 얻게 된다. 고종이 마신 커피맛은 아마도 무척이나 씹쓸했을 것이다.

2009년 7월에 발간된 김탁환의 장편소설“노서아가비(러시안커피)”에 고종이 등장하며, 전개의 일단(一端)을 보면 러시아에서 19세기 초까지 커피는 왕족과 일부 귀족에게 소개되었고 민

중의 기호품은 아니었다고 하며, 독특한 향과 검은 빛깔 때문에 ‘말세에 나타나 그리스도를 대적할것으로 예언된 통치자 적그리스도(敵kristos)의 음료’로 간주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변천을 거치면서 이렇게 표현되었다. “사상보다도 예술보다도 돈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지독한 액체”라고. 말이 시작된 김에 부연하자면, 김탁환은 13개의 콘텐츠로 커피 소설을 엮고 있는데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커피는 돌이킬 수 없이 아득한 질주다. 오직 이것뿐! 이라는 착각이다. 끝나지 않는 당신의 이야기다.”

서양문물을 일찍이 접했던 사람중에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김대건(1822-1846)신부가 커피를 마셨을 것이고, 전설의 무용가 최승희(1911-1969)가 조선히otel에서 커피를 마시던 모습을 보고 일부의 사람도 따라 했다는 말도 있기는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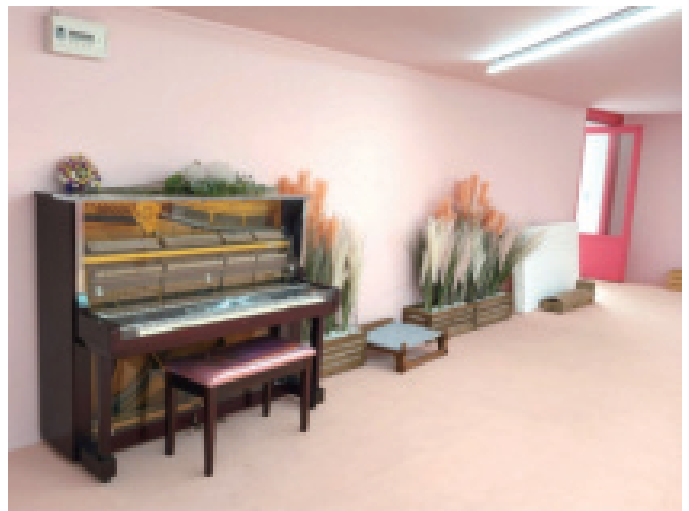
<고리오영감>의 프랑스 작가 발자크(1799-1850)는 하루에 30여잔의 커피를 마셨다 하는데 놀라



보정동 카페거리



남동의 S카페



S카페의 아크릴 피아노

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미국 작가 허먼 멜빌(1819-1891)의 <모비 딕>에 보면 화자인 ‘이슈미얼’이 포경선에 오르기 전 가장 짝 여인숙을 찾던 중 ‘물기둥 여인숙’이란 간판을 보고, 머무르며 최고의 ‘병아리콩 커피’를 마시기에 딱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진짜 커피 대용으로 병아리콩을 빵아 만든 싸구려 커피가 꽤나 있었던 모양이다. 아마도 18개월 동안 작품을 쓰면서 멜빌도 많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우리 문학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커피 광(狂) 두 사람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실생활과 문학 작품 속에 투영된 커피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를 같이 살았던 ‘이효석’과 ‘이상’이다. 1933년에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아홉 명의 작가들이 구인회(九人會)를 조직하는데 ‘이효석’ 탈퇴후 ‘이상’이 가입하여 교류관계는 별로 없는 듯하나 두 사람 모두 톱클래스의 수재, 천재로 통하였으며 단명(短命)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아이러니 일까.

까까머리 시절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이효석(1907-1942)의 대표적 수필 ‘낙엽을 태우면서’에서 ‘낙엽타는 냄새 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가제(갓) 볶아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또한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낀다.’는 표현등을 두고 귀족적이니 어머니하며 설왕설래한 기억이 새롭다. 1992년 발간된 이상옥(李相沃)의 <이효석-문학과 생애>에 보면, 이효석은 1931년 7월에 함경북도 경성(鏡城)출신의 이경원(李敬媛)과 결혼한다. 다음해에 경성으로 내려가 경성농업학교 영어교사로 취임한다.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나남(羅南)에 관심을 갖게 된다.

경성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신흥 군사도시 나남은 그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으로 거기에는 빵을 잘 굽는 카네코라는 가게, 북광관이라는 책점, 찻거리를 구비하고 있는 팔진옥, 그리고 커피맛이 좋은 <동>이라는 찻집이 있었다고 한다. 한잔의 커피를 즐기 위해서 나남까지 십리길을 빈번히 드나들었다고 한다. 당시 경성은 주을온천이 가까워 그가 자주 찾았고 하얼빈에서 온 백계 러시아 피난민들¹⁾이 그곳에 별장을 가지고 있어 몇몇 러시아인들과 사귀었고 그들의 방식을 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1933년 ‘단상(斷想)의 가을’이라는 수필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서울 갔던 길에 날 채로 사 온 한 폰드의 모카가 아직도 통 속에 아니[많이?] 남은 것이 속 든든히 생각된다. 파아코레터를 사용하니 넣은 가루의 분량만 아끼지 않으면 가배(珈琲)의 진미가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 우유도 목장에서 신선한 것이 온다. 가배에 관한 한 서울의 꺾다점(喫茶店)을 부러워

하지 아니하고도 지낼 수 있으니 이 역 가을의 기쁨의 하나.”

여기에서 모카(Mocha)는 아라비아커피, 퍼콜레이터(percolator)는 커피주전자, 가배는 커피의 음역어이며 꺾다점은 찻집을 말한다. 90년전에 지금과 별반 없는 생활상이 아닌가 한다.

1934년 평양으로 옮겨 1936년5월에 숭실전문학

1) 1917년 러시아 혁명때,혁명을 반대하여 국외로 망명한 러시아인으로 좌익적 혁명파가 붉은색을 상징으로 삼는데 비해 백색을 상징으로 삼았기에 백계(白系)로 불린 이름이다.

교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의 둘째 딸 유미(瑠美)의 〈나의 아버님 李孝石〉에 회고가 있다. “아버지는 특별히 장미를 좋아했고 만지시던 악기는 다양했지만 서재에 있던 피아노는 아마하였고 음악을 사랑하는 제자나 친구들이 오면 쇼팽을 치시곤 했다.”고 전한다. 이처럼 이효석은 서양적인 것에 대한 희구 혹은 이국적인 것에 대한 탐닉이 있었고 실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일부로 되어가고 있었다고 모(某) 평론가는 틀어 보았다. 〈메밀꽃 필 무렵〉에 침잠(沈潛)된 독자로서는 꽤나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커피하면 이상(李箱, 1910-1937)을 지나칠 수 없다. 1933년 종로 청진동에 기생 금홍과 제비라는 다방을 열기도 했고 1936년에 대표작인 〈날개〉에서도 주인공인 ‘나’는 박제된 천재로 표현되듯 탈출구를 찾아 아내가 건넨 지폐를 들고 집을 나서 경성역 일대 대합실 한결 티룸을 찾는다. 그리고 한 복스(간막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 앉아서 잘 끓은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그려진다.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그리고 수필 ‘산촌여정(山村餘情)’이 있는데 서간체 방식으로 ‘정형(鄭兄)’이라 부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이다. 여기에서도 커피가 등장한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향기로운 MJB(커피의 일종)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이십여일이나 됩니다.” 폐결핵으로 시달리던 이상은 요양을 위해 산촌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평안남도 성천군을 여행중에 쓴 것으로 1935년 9월 27일~10월11일간에 매일신보에 발표된 글이다. 사

후, 1939년5월 〈문장(文章)〉4호에 게재된 ‘동경(東京)’이란 글에는 신주쿠(新宿)에서 사치를 부리는 듯한 표현으로 후란스야시끼(프랑스식 저택)에서 친구와 우유를 섞은 커피를 십전(十錢)을 주고 마신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의 라떼를 마신 모양이다.

1950년 6.25 동란으로 미국 PX를 통해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온다. 이후에 대중화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한국사람은 커피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 마신다는 외국인의 지적에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당신들은 커피에 설탕을 넣지만 우리는 설탕에 커피를 넣어 마신다.”고 둘러댔다는 제법 위트있는 전설이 있었다.

이어서 60년대에는 명동의 다방을 중심으로 문인과 예술인의 문화가 싹트기 시작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아한 품위가 있다 해서 붙여진 안성 출신의 명동백작 이봉구를 비롯해 김수영, 고은, 천상병, 노천명, 이중섭, 그 유명한 청동다방과 ‘대지’의 작가 펄벅(1892-1973)에게 럭키스트라이크 담배(어떤이는 사슴담배)를 선물 받았다는 공초 오상순까지 등장한다. 사족을 붙이자면 펄벅은 6.25이후의 한국상황을 보고자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아내 호미리여사(중국계미국인)의 안내로 방문한 중에 오상순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호미리여사는 소염제 “안티푸라민”을 탄생케 한 분이기도 하고, 펄벅은 ‘최진주’라는 우리 이름도 가졌다. 독자적인 집필실 하나 없던 문인과 예술인에게 다방은 적절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시대를 풍미하였다.

1968년에 출범한 동서식품의 맥스웰커피, “생활속의 향기를 드립니다.”를 광고문구로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출연했다. 70년대 확장된 사세로 맥스웰커피(인스턴트커피)는 소비 비율 100%에 시장지배율 100%로 세계 유례없는 커피의 역사를 만든다. 70년대 ‘콩피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게 한 일이 있었다. 커피찌꺼기에 담배꽂초를 넣어 끓인 가짜커피가 등장한 것으로 먹을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 어이없는 사건으로 남아있다. 가요에도 커피와 관련된 노래는 있다. 펄시스터즈의 “커피 한잔”, 나훈아의 “찾집의 고독”,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한혜진의 “갈색 추억”,장기하의 “짜구려 커피”등이 시대 별로 등장해 왔다.

필자가 커피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친구 누나가 구 문화원앞 차부(버스터미널)한켠에서 찻집을 했을 때이다. 서울물을 먹은 경험이 있는 친구는 시쳇말로 되바라진 녀석으로 가을소풍에서 성인가요인 최희준의 “폭풍의 사나이”를 불러 선

생님은 물론 아이들을 놀라게 했던 인물인데, 누나가 마시던 커피를 달라고 하니“애들은 마시면 뼈가 삭는다.”하면서 우유를 주었던 기억이 난다. 이후에는 월남전에 참전했다 귀국한 동네 형이 나눠준 미제 인스턴트 커피를 플라스틱 물바가지에 듬뿍 털어넣고 친구와 벌컥벌컥 마셔대었던 기억이 아삼삼하다. 내용물을 비워낸 커피병에 넣은 도시락 반찬으로 유일했던 김치는 버스통학을 하던 친구들은 복잡한 차내에서 허술하게 잠긴 뚜껑이 열려 김칫국물로 얼룩졌던 가방이 생각난다. 깨지지 않는 게 다행이었다.

7.80년대 음악다방은 젊은이의 해방구요 탈출구였다. 그때는 음악다방의 상호로 돌체(dolce)가 압도적이었는데, 돌체는 음악용어로 감미롭게, 부드럽게 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이다.

커피한잔 앞에 놓고 보통 두어 시간씩 죽치고 앉아 주절거리던 곳이다. 이웃 도시인 수원에 음악다



용인시장통 풍경



용인5일장과 커피 밀차



편의점 커피 진열대

방이 여러 곳으로 그중에서 중앙다방은 극장지하에 있던 곳으로 대형냉장고 문짝만한 고급스피커 알텍(ALTEC)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용인에는 별다방과 다른 한곳이 있었다. 지금의 중앙동주민센터(구 경찰서)건너편 시장입구 지하 건물에 있던 '별다방'에서 다방 쉬는날 DJ 녀석(친구)을 꼬드겨 금지곡이던 송창식의 '고래사냥' LP판을 틀어놓고 다방문을 걸어 잠근채 몇 명이 모여 일곱 번을 따라 불렀다. 숨이 차도록 그게 뭐라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피식 웃음이 나곤 한다. 참으로 젊음은 질풍노도요, 유치찬란이며 좌충우돌 이었다.

당시는 들어서는 건물 한곳마다 다방이 유행이던 시절로 커피한잔 시켜놓고, 양주동의 표현처럼 '미희(美姬)를 농락'하던 어르신이 꽤나 계셨다. 얼굴마담

이 있었고 커피를 따르고 배달을 하던 레지가 있었다. 빠른 것이 제일이었기에 무단횡단은 전유물과 같았다. 제지하는 경찰이 있어도 껌을 질정거리며 "오빠 나 바빠"하면서 달아나 버리기 일쑤였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택해야 했었다. 이후에 스쿠터를 이용하거나 자동차로 배달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제 다방은 몇몇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정도이나 그것도 이제는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다. 직장인의 점심메뉴로 최고의 각광을 받는 짜장면을 먹은 후에 커피를 마시면 냄새가 달아났다. 돼지고기를 삶을 때도 커피 몇 스푼을 넣으면 누린내가 없어지기도 하나까 탈취제로도 쓸만하다. 커피 찌꺼기를 화분에 넣어 배합토와 적절히 어울리게도 한다.

1999년 스타벅스가 이화여대앞에 1호점을 열어 한국진출을 했으며, 여타 업체도 줄지어 나타났다. 지상 정보에 의하면 현재 커피 시장의 규모는 약4조원대를 넘는다. 어떻게 보면 커피를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경영이 문제로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치열한 경쟁으로 이미 포화상태이다. 단독건물에 멋진 카페를 내고 싶어도 그만한 재력을 갖춘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가맹사업으로 출발하게 된다. 커피에 우열(愚劣)이나 호오

(好惡)를 따지긴 뭐하지만 정성을 들여 내린 커피는 그 맛이 다르다. 원두를 로스팅하는 방법과 정도, 그리고 추출온도와 시간등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른다는 것은 확실하다. 커피의 원초적인 맛은 쓰지만 중화를 어떻게 하느냐와 어울려 매력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동네 편의점에 가면 별도의 제조나 혼합 없이 바로 마실 수 있는 커피. 이른바 RTD(ready to drink) 액상커피가 수두룩하다. 그것뿐이 아니라 어느 곳을 가든 커피는 있다. 우스갯소리로 화장실만 빼놓고 다 있다. 용인 오일장에서도 밀차에 실은 이동커피가 빠지지 않는다. 시장통 부근으로는 커피판매점이 수두룩하다. 이제는 단순한 커피점이 아닌 커피공장이 등장한다. 널찍한 실내에 공연이 가능하고,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커피 기술자 바리스타(barista)를 두고있는 로스터리 카페로 직접 원두를 볶고 갈아서 맛과 향이 뛰어난 커피를 만들기에 주력한다. 빵도 팔고, 옷도 팔고, 꽃나무도 판다. 차별화를 지나 거대화, 특수화를 겨냥하며 질주하고 있다. 스테디카페, 애견카페, 키즈카페 등등 상당하다. 커피값이야 천차만별이라고 하지만 비싼 것은 확실해 보인다. 보통 가격이 6,000원이상이며 편의점커피도 3,000원은 지불해야 한다.

대형 카페로는 역북동의 C카페의 경우 복층구조로 확트인 시설이 눈길을 끌며, 남동의 S카페는 캠핑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시설까지 갖추어 특색을 달리고 있으며 흔하지 않은 아크릴피아노(투명피아노)도 보유하고 있다. 보정동의 카페거리는 별도의 주차장이 있어 혼잡도는 낮으나 밀집된 구조는 확실히 이국적인 맛은 있어 보인다. 또한 45번 국도변에 스타벅스가 생기더니만 어느날 맥도날드까지 합세하여 자

동차 드나들이 분주하다. 이러니 커피민국이니 커피대한이니 부를만 하다. 어느날 갑자기 커피를 거두어 가는 사태가 발생되면 어떠한 모습이 연출될는지 궁금하다. 한때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이 테이크아웃잔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은 익숙한 그림으로 남았다.

카페가 10만 시대라 한다. 지상에 소개된 자료로는 지난해 커피(원두,생두)수입금액은 13억달러(1조 7000억원)로 역대최대치로 보고 있다. 주요 원두 수입국은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인도네시아로 꼽힌다. 커피에는 중독성 물질인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마시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생각하고 마실까. 하루 권장량이 성인기준 약400mg이다. 웬만한 구충제 한알의 양이다. 요즘 젊은층 일부는 보통 1리터들이 텀블러를 사용해 종일 마시기도 한다. 커피는 신문물로 다가와 아직도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떨어져 있는 순간이 없을 정도이다. 내안에 네가 있고 네안에 내가 있다는 것처럼 진행중이다. 아마도 커피는 치정(癡情)에 가까운 모양새이다. 그만큼 생활과 문화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할 밖에 없을 것이다. 흔하디 흔한 커피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잔 마시고 싶다. 아무래도 블랙커피가 좋을 듯 하다. 이렇게 또다시 시험에 들고야 마는 것이다.

솔가지 때고 소금 뿌려야 영험하다는 신비의 막,
- 재래식 한증막의 전통을 지켜가는

용인한증막

글·사진 | 이은성 _ 스토리텔링연구소

용인한증막-막 불때는 사진

사람들은 밤샘 작업 등으로 몸이 찌뿌드드하거나 피로를 풀고 싶을 때 아마도 찜질방이나 한증막 또는 사우나 등을 생각할 것이다. 특히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지고 싶을 때는 찜질방이나 한증막만한 곳이 없다.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고 수정과, 식혜를 마시며 맥반석 계란을 까먹는 모습은 찜질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찜질방의 조상격인 한증막은 찜질방이나 사우나보다 온도가 더 높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찜질방의 추억을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달구어진 돌 등에서 나오는 음이온 등을 쬐는 것인데 비해 한증막은 직접 불을 때는 돔 속에서 열을 쬐기 때문에 찜질방이나 사우나 보다 더 뜨겁고 자극적이다. 온열자극은 더 고온이므로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열상을 입을 수도 있어서 가운이나 거적 등을 쓰고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이름도 불한증막, 불가마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한증이 옛날부터 여성들에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인지 요즘은 여성전용 한증막이 많은 추세이다.

조선시대 찜질방- 한증소(汗蒸所)

한증막은 우리의 전통적인 찜질방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증소라고 불렸으며, 민간의 치료차원에서 운영되었던 시설이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재래식 한증막은 약 500여 년 전부터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증(汗蒸)의 정확한 정의는 ‘일정한 시설에서 몸을 덥게 하고 땀을 내어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 시키는 물리적 요법’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뜨겁게 달아오른 막에 앉아 땀을 내는 곳이라서 한증소 또는 한증막이라고 부른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돌과 황토를 이용해 돔 형식으로 둥그렇게 만든 다음 솔가지를 때서 돔을 뜨겁게 달궜다. 그리고 그 위에 솔잎을 깔고 누워서 땀을 내기 때문에 오한이나 미열이 있거나 증풍 환자나 기혈이 막힌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소나무를 때는 이유는 소나무를 때면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출되는데 이 원적외선은 우리 몸의 뼈속까지 침투해 혈관을 확장 시켜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며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이다.



복원된 조선시대 한증막-강화 교동도(출처-문화재청)

* 한증소에 대한 기록은 세종 4년 1422년 8월 24일에 처음 보인다. 예조에 전지(傳旨)하기를, “병든 사람으로 한증소에 와서 당초에 땀을 내면 병이 나으리라 하였던 것이, 그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흔히 있게 된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널리 물어보아, 과연 이익이 없다면 폐지 시킬 것이요, 만일 병에 이로움이 있다면, 잘 아는 의원을 보내어 매일 가서 보도록 하되, 환자가 오면 그의 병증세를 진단하여, 땀낼 병이면 땀을 내게 하고, 병이 심하고 기운이 약한 자는 그만두게 하라.”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환자들이 한증소에서 땀을 빼다 가 죽었다고도 한다. 첫 기록이 한증소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널리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증을 이용해 왔던 듯하다.

* 이어서 나오는 한증소에 대한 기록은 세종 4년 1422년 10월 2일. 예조에서 계(啓)하기를,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과 서울 안의 한증소에서 승인(僧人)이 병의 증상은 묻지 않고 모두 땀을 내게 하여, 왕왕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니, 이제 한증소를 문밖(門外)에 한 곳과 서울 안에 한 곳을 두고, 전의감·혜민국·제생원의 의원을 한 곳에 두 사람씩 차정(差定)하여, 그 병의 증세를 진찰시켜 땀을 낼 만한 사람에게는 땀을 내게 하되, 그들이 상세히 살피지 않고 사람을 상해시킨 자는 의원과 승인(僧人)을 모두 논죄하게 하소서.”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한증소를 관리하는 한증승(汗蒸僧)이 병의 증상은 묻지 않고 모두 땀을 내게 하여 왕왕 사람을 죽게 했으니 이들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한증소를 한양 안과 밖에 하나씩 두고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파견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건의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기산 김준근 한증막

당시 한증소는 승려들이 운영했으며 나름 치료효과가 좋았나보다. 환자들이 몰려들어 1429년에는 혜일이라는 승려가 한증소를 세 곳으로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려달라는 내용도 보인다. 그래서 두 곳은 일반 백성과 천민으로 나눠 남자들이 이용하고, 나머지 한 곳은 여자들이 사용하게 했다고 한다. 새로 만든 한증소 안에는 석탕자(石蕩子)가 설치되기도 했는데 오늘날의 한증막*찜질방*목욕탕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같이 운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은 병 치유목적으로 찜질방이나 한증막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담소도 나누고 편히 쉬기 위해 찾는 곳이겠지만, 조선시대에는 백성들, 특히 가난한 빈민들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이 혜민서나 활인원이었다. 그 안에서 설치된 한증소는 그들에게 더없이 고마운 시설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증소를 백성들만 애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 성종 1482년 13년 2월 7일. '삼대비가 한증을 하기 위해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다'라는 제목과 함께 '삼대비(三大妃)가 경복궁으로 이어(移御)하였는데, 이는 한증을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왕실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증을 널리 이용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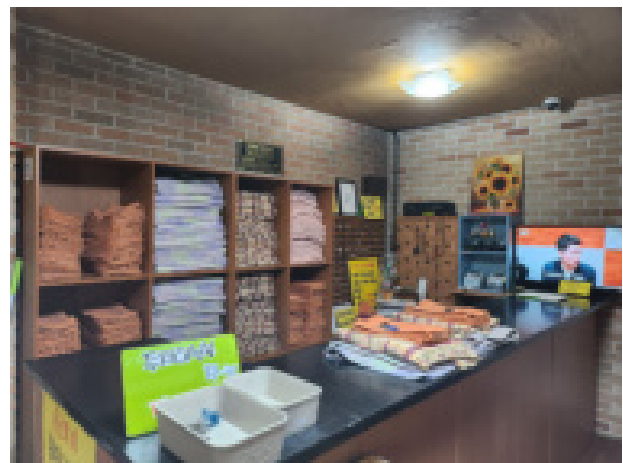
조선시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즐겨 찾았던 한증소는 언제까지 운영되고 이용했을까? 현재 강화도 교동도에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한증막 터가 남아 있는데, 이 한증막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19세기 말 활동했던 화가 기산 김준근의 그림에도 한증소가 등장하는데, 이 시기에 풍속화를 그리는 화가의 그림에 한증소가 나오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 내내 한증소는 애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일제강점기에도 꾸준히 이용되었는데, 1930년대 초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한증막 안에서 불이 발화했다는 내용과 원인으로 '부인 30~40명이 모여서 벗집을 깔고 한증을 하다가 벗집에 불이 붙었다'라는 내용을 보면 한증은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더 다양하게 발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래식 한증막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용인한증막'

뭐든지 어떤 분야든지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고집스러움도 있어야 하지만 사명감도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증막을 운영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불법소각



용인한증막 입구



용인한증막 카운터



용인한증막 땀감-소나무와 솔가지

으로 조금이라도 연기가 나면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솔가지를 해야 하는 재래식 전통 한증막은 종종 연기로 인한 신고를 당하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 소재(가장 오래된 전통 막)인 용인한증막을 찾아가 보았다. 경안천 변 주택가 안에 자리 잡은 용인한증막은 초기에는 도심이 아니었으리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들이 늘어났을 것이고 처음 찾아오는 손님들은 “주택가에 한증막이 있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하며 외벽에 붙어있는 70년이라는 숫자와 신비의 막이라는 글씨를 보면서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외부의 모습과 달리 안으로 들어오니 생각보다 널찍한데 2층까지 이어진 적절한 공간 배치는 ‘들어오니 더 괜찮네’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어서 만나 뵈게 된 여자 사장님과 인사를 한 후 전통 한증막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용인한증막-막 들어가는 입구

A : 안녕하세요. 외부 건물에 ‘70년 전통 신비의 막’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네요. 막을 시작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B :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막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 막을 샀을 때, 그때도 70년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때 10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A : 시어머니께서 몇 년을 운영하셨나요?

B :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들어와서 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5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운영하기 전에도 주인이 두 번 정도 갈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고향이 원래 용인인데 이 한증막을 자주 다니셨대요. 고객으로. 그러다가 이걸 사서 하게 된 거고, 조금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계속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 자리에 원룸을 지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없어야 안 된다고 주위에서 이걸 꼭 하라고 해서 계속하게 된 거죠.

A : 언제부터 여성전용 한증막으로 전환하신 건가요?

B : 저도 들은 거라 확실치는 않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운영하실 때는 제가 한 번도 와 보질 못해서요. 그런데 그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남자분들이 오시는 날이 있었다고 해요.

A : 겉으로 봐서는 막 불 때는 아궁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00% 소나무로 막에 불을 땀다고 하셨는데 불은 몇 시쯤 때나요?

B : 아궁이는 저 안쪽으로 있어요. 돔은 전체가 돌이에요. 폭이 거의 1미터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식어요. 불 때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불을 때기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데 3시간 동안 작업해서 그걸로 하루 24시간 가는 거예요.

A : 용인한증막 돔의 특징이 있나요?

B : 있어요. 돔 바닥이 이렇게 이만큼씩 깨고 황토- 소금- 황토- 소금을 켜켜이 해서 깔은 그런 바닥이에요. 이렇게 전기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재래식 전통 방식으로 하니까 세련된 시설은 아니더라도 건강에 좋게 천연으로 하니까 손님들이 좋아해요. 옛날부터

쭉 다니던 손님들이 그냥 입소문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단골손님이 많아요.

A : 불을 때고 바로 닫아놓고 바로는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죠?

B : 6시까지 때고 나면 끝나자마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손님들은 주무시는 분도 계셔서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왕탕 또는 꽃탕 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불 때자마자 제일 뜨거운 시간에 들어가요.

용인한증막의 하이라이트는 꽃탕

* 한증막은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전에는 맨몸에 형견 또는 가마니를 둘러서 감고 들어가 솔잎 위에 누워 땀을 내는데,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4~5분 정도 땀을 낸 다음 일단 몸을 식히고 입을욕을 반복한다. 요즘은 가마니 대신 두꺼운 마대자루나 담요를 두르고 들어가서 방석을 깔고 앉거나 그냥 바닥에 앉아 땀을 뺀다. 다른 곳도 차이만 있을 뿐 이용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하다.

** 꽃탕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꽃탕은 무엇일까? 1960년대 꽃탕에 관한 기사를 보면, '술가지로 세 네시간 불을 때고, 불이 다 타면 고물개로 긁어낸 다음 소금물을 끼얹고 물에 적신 가마니를 두 겹 깐다. 그리고선 사방 석자 쯤 되는 조그만 문을 꼭 닫아둔다. 이렇게 닫았다가 얼마 뒤에 문을 열고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이것을 꽃탕이라 부른다. 이 꽃탕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증을 2~3년 해서 뜨거울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한증막에 불을 땀 직후의 모습이다.

A : 저도 한증막은 처음 지금 와봐서 들어가 보려는데 초보자는 언제 들어가면 좋은지 팁을 주시지요? 보통

제일 낮은 게 한 100도쯤 될까요?

B : 온도는 안 재본 것 같은데 하여간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이제 그냥 못 들어가죠. 여기 이렇게 마대가 있어요. 원래는 커피콩을 담는 그 자루인데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그것을 한두 겹 정도 쓰고 바닥도 또 하나 깔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그냥 들어가도 될 정도 돼요. 하루에 낮 12시 오후 6시 두 번 물을 뿌리면 막이 다시 확실아나거든요. 그래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오후에 오시면 좋아요.

A : 한증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 좋을까요?

B : 모두에게 좋지만,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아픈 사람들에게 더 좋겠죠? 왜냐면 그게 소나무를 때다 보면 위에 파랗게 바이오라는 게 막에 달라붙거든요. 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하얗게 보여요. 그 바이오가 다 자기 몸에 흡수되는 거니까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만약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해도 우리 막에 와서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풀리고 이럴 정도로 그게 침투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을 막에 넣으면 노른자부터 익어요. 이게 침투력이 깊게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사우나는 겉에서부터 땀이 나잖아요. 그런데 한증은 안에서부터 땀이 나요. 속 땀이 난다고 해요. 예전에 엄마들이 아궁이 있을 때는 부인병도 거의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훈실이 있어요. 좌훈을 증기 열로 하지 않고 뚝배기에 쑥을 넣어서 직접 태우는 방식이라 정말 좋아요. 경락실, 부항실도 있어서 여자분들에게 특화된 한증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인한증막-훈증실

A : 100% 소나무를 때는데 소나무는 어디서 가져오세요?

B : 우리 소나무 작업장은 양지쪽에 있어요. 여기 장소가 좁아서 양지 가는 쪽에 작업장에서 나무 작업해서 그 날그날 아저씨들이 갖고 와서 여기다 쌓아놓고 아침에 불을 때요.

A : 한증막을 운영해보면서 에피소드처럼 재미난 일화가 있을까요?

B : 이게 에피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한증막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병원 안가고 여기 오면 다 낫는다고들 해요. 예를 들어서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여기 와서 입 벌리고 아~하고 있으면 진짜로 안 아프대요. 무조건 몸만 아프면 여기 오는 거예요.

A : 좀 전에 제가 기다리면서 보니 안성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천에서도 오시고 그러더군요. 또 어떤 분은 한 번 오시면 이틀 정도 계시다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멀리서 오시는 단골손님이 많은가 봐요? 앞으로

로도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시죠?

B : 네. 지방에서도 많이 와서 며칠씩 있다 가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나 고맙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여기가 주택가 안에 들어 있어서 갈수록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게 힘들어져요. 물을 땀 때 소나무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솔가지를 같이 때야 하는데 주위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자꾸 신고해서 지금은 솔가지를 줄여서 한 다발만 때고 소나무를 때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땀에 손님도 많이 줄어서 힘들기도 했구요. 그래도 재래식으로 전통을 지켜가면서 한증막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전통 방식은 용인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수원에도 몇군데 있었는데 연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안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도 꼭 찾아주시는 단골분들과 여자분들 건강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는 날까지 전통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2. 조선백성실록. 북로드. 정명섭지음

눈과 몸과 마음의 힐링의 공간 뚝플레이스

이미경 _ 용인문화원 해설사

뚝방길 혹은 뚝길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가두어 생긴 저수지의 제방위의 길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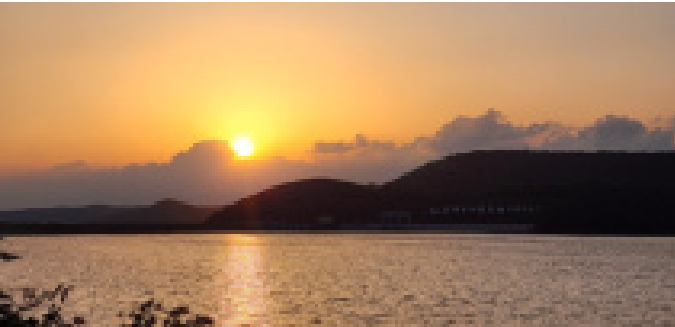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연인들의 데이트길이나 사색의 장소로 가끔씩 등장하는 뚝방길은 여유롭고 낭만적인 모습으로 보였다.

수려한 산과 물이 맑은 용인에는 작든 크든 골짜기마다 저수지가 있었다. 지도에 나와 있는 저수지만도 30여개에 해당한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시절에

쌀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고자 만들어진 저수지는 도시화 현대화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저수지의 뚝방길에는 벤치도 만들어 놓아 쉼공간이 생기고, 걸을 수 없는 흙길은 테크를 깔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되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은 눈의 호사를 누리게 해 준다. 몸과 마음을 호강시켜 주는 용인의 저수지를 몇 군데 소개해 본다.





이동저수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동저수지는 지형이 물고기의 날개 지느러미처럼 생겼다고 하여 어비촌이라 불렀는데 묵리, 서리, 천리에서 흐르는 물이 어비촌 가운데로 흘러들자 1972년 제방을 쌓아 저수지로 만들었다.

2026년까지 총 둘레가 13km에 달하는 둘레길과 환경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데, 2022년 11월에 1단계로 송전레스피아에서 송전남시티까지 마무리되었다.

봄에는 이동저수지에서 남사 화훼단지까지 11km 벚꽃길이 이어지는데,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은 아주 환상적이다. 산 중턱에 있는 동도사에서 저수지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저수지 아래로 떨어지는 해는 마치 불이 난 듯 저수지를 붉게 물들이고 사라지는 어비낙조는 용인 8경으로 유명하다.

둘레길을 따라 호수뷰를 감상할 수 있는 대형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아름다운 호수를 감상하며 물멍을 즐길 수 있다.

이동 저수지는 아주 넓어서 하루를 여유 있게 다녀 볼 수 있는데, 전체 둘레길이 단계별로 조성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2026년 완공이 기다려진다.

용덕저수지

용덕저수지는 농업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요즘은 도시화의 영향으로 사람과 가까워져 농업용 외의 또 다른 활용방안으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전체를 산책할 수 있는 오색둘레길이 만들어져 있다.



둘레길 입구에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데크길을 지나면서 넓은 둘레길이 시작된다. 햇빛에 반짝이는 맑은 물과 아기자기한 저수지를 보며 걷다보면 낮은 등산로로 연결된 길이 독으로 이어지고, 도로 안쪽의 둘레길에는 전망대를 지나 주차장까지 이어져 한 바퀴를 돌며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는 용덕저수지 오색둘레길이다.

산책로에는 수변쉼터, 왕벚나무, 목교, 전망테크, 용덕낚시터, 안젤리 미술관 등 설곳과 볼곳이 있어서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다.

축조된지 50년이 넘는 계곡저수지로 풍광과 일몰이 아름답다. 한바퀴 도는데 1시간이면 충분한 눈도 마음도 호강하는 오색둘레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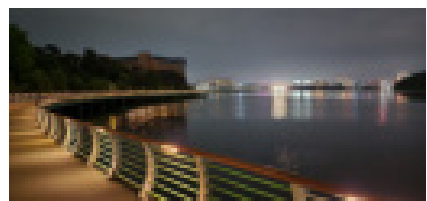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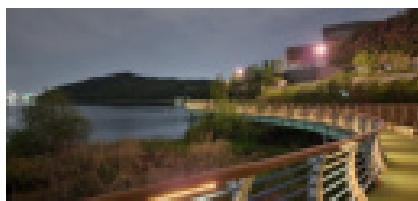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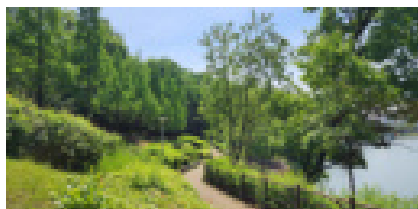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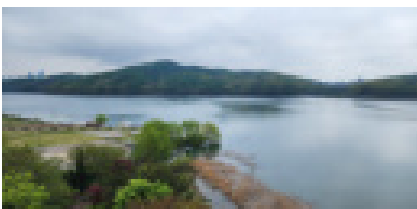
기흥저수지

기흥저수지를 기흥호수라 부른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의해 공원으로 탈바꿈한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저수지를 호수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흥호수가 맞다.

공원으로 탈바꿈한 기흥호수공원에는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환산책로가 3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 조정경기장에서 시작해 조정경기장으로 돌아오는 A코스는 총 10km로 4시간이 소요된다.

생태학습장에는 야생화가 있을 뿐 아니라 곳곳에 테이블, 벤치, 체육시설과 넓은 주차장도 있고, 조정



경기장 맞은편 산책로는 용서고속도로 아래 주차장이 있고, 매미산 아래로 연결되어 있어 오후에는 그늘이 만들어져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다닐 수 있으며, 밤에는 저수지 위에 조성된 산책로 조명이 환상적이다. 밤에는 주변 아파트와 공장 야경까지 더해져 밤산책을 할 때에는 낮과 다른 화려하고 다채로운 새로운 기흥호수를 만날 수 있다.

경기도에서 3번째, 용인에서 2번째 큰 호수로 그 외에도 조정경기장 옆 전망대 주변 물빛 정원은 봄에는 메리골드를,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 군락지를 이루고, 볼거리, 먹거리가 즐거운 공원으로 용인 8경 중 제3경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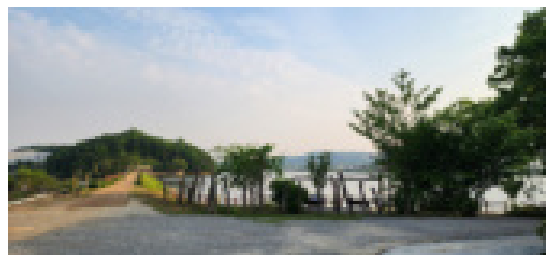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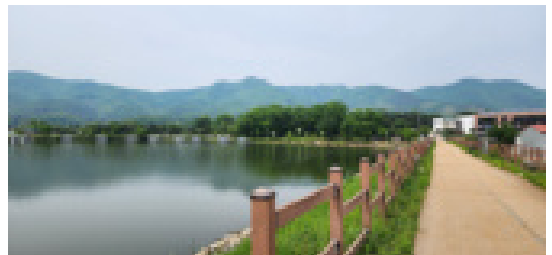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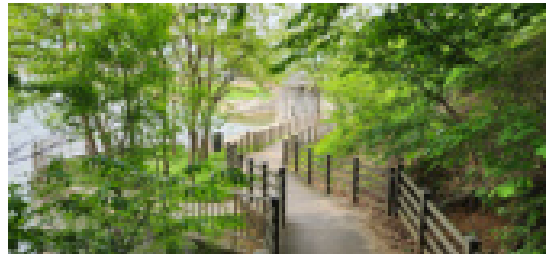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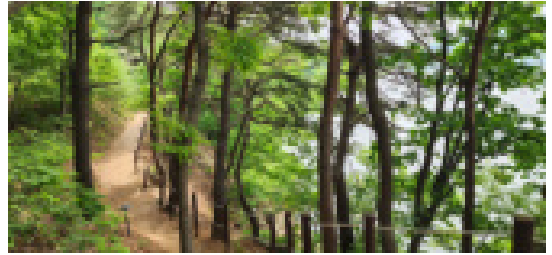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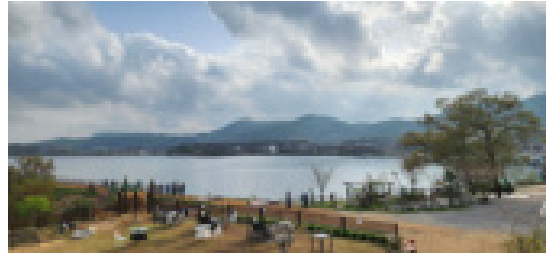
용담호수

용이 승천하여 용담이라 불리는 용담호수는 저수지 둘레에 문수산, 칠봉산, 독조봉 등 산 들이 한 바퀴 에워싸고 있어 산 위에서 보면 마치 연꽃잎에 쌓여 있는 모습이라 한다.

저수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이 4.1km로 조성되어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소요되며, 관리사무소 앞 상수리나무 그늘에는 오전 10시~12시까지 마음 힐링 명상과 용머리 숲에서 걷기 명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파견된 분이 무료로 하고 있다.

숲길을 따라 용머리산 둘레길을 오르면 산 안으로 이어진 혼자 걸을 수 있는 오솔길이 나오는데, 흙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맨발걷기도 가능하다.

숲은 면역력을 높여 질병치료를 돕는 그린닥터로 통하는데, 인적은 드물고 숲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는 맑고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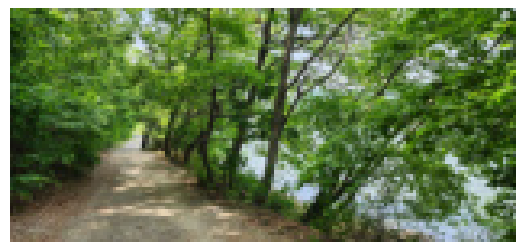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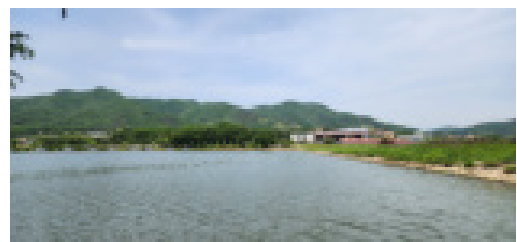


아해 잡념이 저절로 사라져 온전히 숲을 느끼며 명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독방길에서 열리는 푹마켓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공방과 작가들이 만든 100% 수공예 작품을 판매한다고 하니 시간이 맞는다면 구경은 공짜 구매는 선택이다.

근처 와우정사를 보고 곱든 고개를 넘어 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해 일몰까지 아름다운 용담호수의 코스는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용담호수 둘레길이다.

혹시 비오는 날, 용이 물속에서 불쑥 나온다고 하여도 놀라지 말기를...





경남 함양 편

영남 정자문화의 보고 ‘함양’

장이영 _ 경남 함양 답사 참가자

날이 밝아온다. 답사 버스 안 유리창엔 희미하고 따스한 빛줄기가 창틀을 비춘다. 빛줄기는 내친걸음에 창틀을 넘어 밤잠을 설치며 달려와 앉은 여행객들을 휘어 감는다. 마치 화창한 남쪽여행을 암시해주듯 기분 좋은 빛이다.

출발 전 갓 썰은 떡과 생수를 나눠준다. 아침을 거르고 온 이들은 떡을 먹으며 귀로는 용인문화원 김장환 사무국장의 일정소개와 답사지 안내를 듣는다.

용인문화원의 ‘전국역사문화기행’은 인기가 제법 많다. 골수회원도 많다. 그 인기의 비결은 단연코 김장환 사무국장의 해박하고 명쾌한 해설 때문이리라

용인을 떠나 금산휴게소까지 시원하게 뚫린 길을 버스는 내달린다.

“빨간 차라고 무조건 올라타시면 안됩니다.” 휴게소에 내려주며 기사님이 남긴 말
과연 내려 보니 빨간색 버스가 도처에 보인다.

어느덧 버스는 ‘서함양 IC’를 빠져나와 함양군내로 들어선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눈이 내려앉은 듯 새하얀 이팝나무. 달린 꽃송이가 사발에 소복이 얹힌 흰쌀밥처럼 보여 ‘이밥나무’라고 했으며 ‘이밥’이 ‘이팝’으로 변해 이팝나무가 되었다는 설과, 절기상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를 전후해 꽃이 핀다고 ‘입하’가 연음되어 이팝나무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지역축제인 ‘천령문화제’를 알리는 현수막, 옛 공중전화 박스.. 너른 들과 얽은 막한 산에 둘러싸인 함양의 첫인상은 따뜻한 고향의 품, 외갓집을 찾는듯한 편안함이었다.



상림. 출처 : 함양군

천년의 숲 ‘상림’

상림은 64,000평의 대지에 120여종의 활엽수 20,000그루가 장관을 이루는 인공림으로서,

신라 진성여왕 때 고운 최치원 선생이 천령군(함양군의 옛명칭)의 태수로 부임해 조립한 곳이다. 최치원 선생은 지리산 북쪽 계류가 흘러든 위천이 마을을 관류하여 매년 홍수의 피해가 커지자 백성들을 동원해 독을 쌓아 물길을 시내 외곽으로 돌리며 대대적으로 인공 조림케 하였고, 이를 ‘대관림(大館林)이라 했다고 한다

장관을 이루던 대관림은 세월이 지나 숲의 한가운데가 훼손되면서 마을이 형성돼 상림과 하림으로 나뉘어졌는데 현재 하림은 거의 없어지고, 상림만 남아 함양군민들의 안식처이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공원이 되었다.

이곳 상림은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정치적 실천 무대로서, 작금의 정치꾼들이 꼭 본받아야 할 덕목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숲 속에는 조선 시대 함양 읍성의 남문으로 “멀리 지리산이 보인다”하여 망악루(望岳樓)라 불리었던 ‘함화루가 있고, 1923년 최씨 문중에서 최치원의 공적을 기리기



함양 척화비

위해 세운 신도비도 보인다.

상림을 걷다보면 뜻밖의 문화재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함양 척화비’이다.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와 1871년(고종 8년)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정부가 쇄국의 의지를 고취하고자 1871년 세운 비석중 하나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곧 화친하게 되니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만년에 걸친 자손들에게 경계하노니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운다’

다른 척화비들이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훼손되었던 것에 비해 이 비석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

어 있다.

상림의 숲길은 천년의 숲답게 개서어나무, 까치박달, 회화나무, 쉬나무, 은백양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고목들과 다섯 사람은 나란히 걸어갈 만큼 넓고 여유로운 흙길이 이어진다. 아직은 연두색이 남아있는 나뭇잎의 싱그러움과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은 걷는 내내 기분 좋은 쾌적함을 안겨준다. 또한 숲 한켠엔 함양의 역사적 인물 11인의 흉상과 그 업적을 기록해 놓은 ‘역사인물공원’도 있다. 여기에 모신 인물로는 최치원 외에 조선 후기 실학자로 북학 운동을 시작한 연암 박지원, 조선 초기 성리학의 거두로 영남 사림파의 종조 점필재 김종직, 조선 초기 문신이며 성리학의 대가 정여창, 구한말 의병장 의재 문태서, 청백리로 널리 알려진 옥계 노진 등이 있다.

학사루(學士樓)

상림에서 차로 5분 거리에 학사루가 있다. 내려서 둘러보고 싶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해 아쉽게도 잠시 정차된 차안에서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함양군청 앞에 있는 학사루는 정면 다섯 칸, 측면 두 칸의 웅장한 누각으로 최치원이 처음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양관아(함양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것을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것으로 함양읍성 중심에 위치한 객사의 부속건물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이 건물만 남겨두고 모든 건물을 없애 버렸다. 누대는 저 유명한 무오사화 때 유자광이 김종직을 부관 참시하는 빌미가 되었던 바로 그 누대이다.

점필재 김종직은 함양군수로 부임해 학사루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일개 궁궐 문을 지키던 갑사에서 무령군으로 권세를 누리며 남이 장군을 모함하여 죽이고, 조정을 어지럽히던 유자광의 시를 발견한다. 김종직은 단호하게 유자광의 시가 적힌 편액을 떼어 불질러 버리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유자광은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았다.

무오사화는 훈구파의 유자광이 신진사림 김일손, 김굉필, 정여창 등을 대대적으로 제거한 사건이다. 그 발단은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성종실록』 사초에 실었는데, 이것을 유자광이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훈구대신과 연산군에게 일러바치며 시작되었다. 연산군은 김일손등 사림파 30여명을 사형시키거나 조정에서 쫓아냈다. 이때 이미 죽은 김종직의 시체를

관에서 꺼내어 부관참시 하였다.

훗날 김종직은 많은 서원의 배향자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유자광은 만년에 유배 가서 장님이 되어 쓸쓸히 죽었다고 하는데, 조정에서 자손에게 장례지내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큰아들은 여색에 빠져 가보지 않았고, 작은아들은 아프다고 핑계대고는 끝내 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

개평한옥마을

함양에서 안의로 내려가는 길. 24번 국도를 따라 10여분 달렸을까.. 두 개울이 하나로 모이는 지곡면에 개평(介坪) 마을이 나타난다. 지은 지 100여년이 넘는 크고 작은 한옥 60여 채가 보존되어 있는 이 마



버스안에서 바라본 '학사루'

을은 집집이 낮은 돌담으로 경계를 삼은 집들이 보이고, 담벼락 아래엔 작은 금낭화가 조롱조롱 어여삐 피어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언덕엔 노송이 방풍 언덕으로 줄을 이어 서있는 것이 격조 있게 보인다.

예부터 양반 고장을 지칭할 때 좌안동(左安東) 우함양(右咸陽)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듯이, 함양은 안동 못지않은 양반의 고장으로 이곳 개평마을에는 큰선비 정여창의 고택이 있다. 비록 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고, 다시 1504년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까지 당하는 고난을 겪은 인물이지만 성리학사에서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과 함께 5현으로 칭송되는 인물이다. ‘정여창 고택’ 또는 ‘일두 고택’이라 불리는 정여창 생가는 현재 민속자료 제 186호로 지정

되어 있으며, TV 드라마 ‘토지’, ‘미스터 션샤인’, ‘왕이 된 남자’ 등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느 양반가옥과 마찬가지로 솥을 대문, 사랑채, 안채, 행랑채, 별당, 가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솥을 대문에는 다섯 명의 효자와 충신을 배출했음을 알리는 5개의 ‘정려’를 게시한 문패가 달려 있고, 사랑채에는 흥선대원군이 썼다고 알려진 ‘충효절의’가 걸려있다.

전체적으로 수목담채화 같은 담백한 품격이 느껴지는 고택을 나와 맞은편을 보니 530년 전통의 가양주인 ‘지리산 솔송주’ 문화관이 있다.

하동정씨 문중에 대대로 내려온 솔잎으로 담그는 솔잎술인 솔송주를 한 모금 시음해 보았는데 청량한



개평한옥마을



정여창 고택

솔향기가 은은하게 나며 그 맛이 깔끔하다. 이 마을에는 일두고택을 비롯하여 풍천 노씨 대종가, 노참판택 고가, 하동정씨 고가, 오담고택 등의 양반 가옥이 아직도 예스러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서원 탐방을 앞두고 문화원에서 중식으로 ‘메기매운탕’을 준비해주었다. 눈앞엔 강이 흐르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는 메기매운탕 전문식당은 평일 낮인데도 손님으로 가득했다. 매운탕이 조금 짭거라는 나의 예상은 빗나가고, 적당한 얼큰함으로 매운탕을 뜨는 답사객들의 손놀림이 여기저기 바쁘다. 여기에 유기영 선생이 챙겨 오신 ‘처인성 막걸리’가 곁들여지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 남계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에 위치한 남계서원은 1552년(명종 7년) 일두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고, 1566년(명종 21년)에 ‘남계(濫溪)’라는 이름으로 사액되었다. 구릉을 등진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원 앞으로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계천이 흐르고, 그 앞 넓은 들판 너머로 안산(案山)인 백암산이 서원을 마주보고 있다.



남계서원. 출처 : 함양군



서원에 들어가려면 서원 입구의 하마비와 홍살문을 거쳐야 한다. 하마비는 이곳이 성현이 계시는 곳이니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리라'는 뜻이고, 홍살문은 주술적 의미로 '귀신, 잡귀는 접근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 차례 답사를 따라다닌 결과, 이제는 나도 알고 있다. 남계서원은 용인의 심곡서원이나 충렬서원의 정문과는 달리 '풍영루'가 누문으로서 정문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남 지역 서원의 특징이라고 한다. 풍영루로 들어서면 좌우에 작은 연못과 선비들의 방인 동재(東齋) '양정재'와 서재(西齋) '보인재'가 자리한다. 한 단 높은 곳에 강당인 '명성당'이 있고, 그 뒤 경사지에 사당이 있다.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공간인 강학공간은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은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학후묘'인데 한국 서원의 배치 형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곳이 바로 이 남계서원이다. 남계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순흥(현재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세운 백운동서원(후에 소수서원으로 사액됨) 다음으로

오래된 서원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살아남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다.

몇 년 전 나는 영주여행을 하다 우연히 소수서원의 제향의식을 참관한 적이 있는데, 소수서원 건물이 놓인 방식이 자유로움을 넘어 사당의 자리는 어정쩡하다고 느낀바 있다.

그렇다. 조선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은 조선시대 서원 건축의 초기 배치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남계서원은 정문에서 사당까지 중요한 건물을 거의 좌우대칭으로 배치했는데 이는 이후 경사지에 건립한 서원 건축의 모범이 되었다.

사당에는 함양의 인물, 정여창의 위패를 가운데 모시고 좌우에 각각 정온과 강익의 위패를 모셨다. 정여창은 연꽃을 좋아해서 재실의 이름도 '애련헌'이라 하였다고 한다. 명성당 오른쪽 벽면엔 연꽃 그림이 왼쪽 벽면엔 매화가 그려진 게 우연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남계서원을 나섰다.



청계서원

큰선비가 많이 나오고, 양반의 고장이라서일까 믿어지지 않게도 남계서원 바로 옆에 청계서원이 있다. 청계서원은 조선 연산군 때의 학자 김일손(金駟孫 : 1464-1498)이 수학하던 서원이다. 호는 탁영, 시호는 문민공이다. 1486

년(성종 17) 문과에 급제하여 성종 때 춘추관 기사관이 되었다가 학자들과 함께 '조의제문' 사건에 연류되어 무오사화(戊午士禍)때 처형되었다. 일찍이 스승으로 섬긴 김종직을 닮아 사장(詞章)에 능했고 고관들의 부패와 불의를 규탄하였다. 1495년 청계정사에 김일손이 한 동안 수학하였는데, 1905년 유림들이 상의하여 그 터에 그의 유허비를 세웠다. 1907년 청계정사가 있던 터에 청계서원을 세우고 김일손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향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남계서원은 화려한 단청과 대강당인 '명성당'의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라면, 청계서원은

단청을 하지 않은 수수함과 강당인 '애락당' 앞의 용트림을 하는 듯한 소나무의 위용이 서원을 들어서서 이들을 압도한다.

화림동 계곡. 팔담팔정(八潭八亭)

산수가 수려한 함양의 화림동 계곡에는 6km에 걸쳐 '팔담팔정(八潭八亭)', 즉 여덟 개의 깊은 소와 여덟 개의 누정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예로부터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6세기를 대표하던 유학자 남명 조식(曹植)은 화림동 계곡을 여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푸른 봉우리는 깎아 세운 듯 물빛은 쪽빛인 듯
 많이 가지고 많이 간직해도 이는 탐욕이 아니라
 이를 잡으면서 굳이 세상사를 이야기 하는가

산 이야기 물 이야기 여러 이야깃거리가 많은데

거연정(居然亭)

아름다운 화림동 계곡 '팔담 팔정'의 시작이 바로 거연정이다.

거연정은 인조 때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전시서가 처음으로 지었다. 거연정은 자연 암반 위에 누각 형태로 지어진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다. 1층 누각 아래를 받치는 기둥을 보면 자연 암반을 그대로 이용하며 그랭이질한 것도 있고, 다듬은 주춧돌을 사용한 것도 있다. 2층은 한편에 한 칸 규모의 방을 놓고 삼면을 두른 형태이다. 거연정에는 임헌회의 <거연정기>를 비롯한 여러 시인과 묵객들이 지은 현판이 걸려 있다.

예로부터 화림동 계곡의 여덟 개 누정 가운데 거연정을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다.

거연정이 들어선 자리는 다른 누정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화림동 계곡의 갈라진 두 물줄기 사이로 섬처럼 커다란 바위산이 생기고, 거기에 자연과 하나 되는 거연정이 들어서 있다. 거연정은 이름 그대로 자연 속에서 자연이 되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았다. 섬 같은 거연정으로 가려면 무지개처럼 놓인 다리를 건너야 한다.

정자로 향하는 이 다리를 화림교(花林橋)라 하고 흐르는 물을 '꽃이 찾고 버들을 따라간다'는 뜻의 '방화수류천'이라 부른다.

벚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학문과 충절을 논했을 영남 유생들. 정자라기보다는 근사한 시 한편을 본듯



거연정. 출처 : 함양군

한 거연정을 뒤로하고 용인으로 올라가는 길. 어느덧 세속의 잡사는 물길을 따라 흘러가 버렸다.

사. 삶의 활력과 가슴이 뛰는 설렘을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는가.

다음번 답사지는 섬강과 치악의 고장 '원주' 라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용인문화원'과 떠나는 전국답

용인 대표축제가 없다... 그래도 ‘처인성 문화제’가 있다

축제 연혁·소재 역사성·인지도와 장소, 단연 용인시 대표성 최고
중장기발전 계획 세워 지역 넘어 전국·세계 축제로 키워 나가야

함승태 _ 용인시민신문 뉴미디어 본부장

32년 역사, 용인 최초 ‘처인성 문화제’ 다시 보기

지난 6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처인성 문화제>가 펼쳐졌다. 처인성 현지에서 모든 행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틀에 걸쳐 약 2만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긴 호흡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처인성 문화제’의 가치와 그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행사장을 찾은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에 열심이다. 인근 초중고 학생들이 다수 행사장을 찾았다. 처인성문화제는 미래세대에게 훌륭한 학교 밖 교육현장이기도 했다.



처인성 현지에서 모든 행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틀에 걸쳐 약 2만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무엇보다 처인성 문화제는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향토축제다. 1986년부터 ‘용구문화예술제’라는 명칭으로 시작해 올해로 32회를 맞이했다. 두 번째는 역사성이다.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처인성은 고려 고종 19년(1232년) 몽골군의 제2차 침공 때 승장 김윤후가 적장 살리타이를 사살해 승리로 이끈 대몽항쟁의 전승지다. 처인부곡민들은 승장 김윤후와 합심해 몽골 대군을 맞아 용감하게 싸워 이긴 곳이다.

이는 13세기 몽골군이 동북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까지 차지했던 위세에 비춰 반만년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순간이며 장소이다. 특히 그 승전의 주체는 처인부곡민, 즉 기층 민중이었다. 당시 처인성 승

첩의 순간에 정규군은 아예 없었다. 지역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위적 항전으로서 피지배층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킨 우리민족 의병항쟁의 효시와 다름없다.

역사적 가치와 상징으로 볼 때, 처인성 대몽 승첩은 고려시대를 관통하는 외세항쟁과 호국정신의 대표성을 갖는 데 손색이 없다. 몽골이 전 유라시아대륙을 대상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총사령관이 전사해 모든 군대를 물린 사례는 동아시아 귀퉁이 작은 반도 국가 고려국의 처인성 전투가 유일했다.

인물사적 측면에서도 승장 김윤후는 조선의 전쟁 영웅 이순신과 비견된다. 스스로 공을 물리는가 하면

처인성 전투(2차·1232년)와 충주성 전투(5차·1253년) 모두를 승릴 이끈 인물이다. 더구나 김윤후는 충주성 전투 당시 성 안의 노비들을 불러 모아 적을 막는다면 신분의 귀천 없이 벼슬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그들 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획한 소와 말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은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는 파격이었다.

당시 사회적 신분상 차별을 받았던 행정단위 ‘부곡’에서 ‘현(縣)으로 읍호가 승격된 것은 오늘날 처인지역이 남사·이동읍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반도체 도시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이 마당에 또 다른 역사적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특별한 소재를 지닌 용인시는 다른 특례시 못지 않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자산을 지닌 셈이다.

용인엔 대표축제가 없다?

용인시의 대표축제 발굴 노력은 꽤 오래도록 지속돼 왔다. 그럼에도 대표축제를 꼽으려면 쉽지 않다. 전국에서 알아줄 만한 행사를 찾으려면 더욱 힘든 현실이다. 100만 명 이상 4대 특례시만 비교해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특례시를 앞둔 4개 시 중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와 문화 콘텐츠가 제대로 없는 곳은 용인뿐이다. 수원시는 수원 화성문화제가 있다. 1964년 화흥문화제로 시작해 60년 역사를 지녔다. 전국 축제이자 종합문화예술제로 거듭난 데 이어 국제 문화축제를 꿈꾸고 있다. 수원시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기에 자신감이 넘친다.



상설부스로는 처인승첩 해설 부스와 체험 코너를 중심으로 설치됐다. 처인승첩 해설부스는 용인문화원이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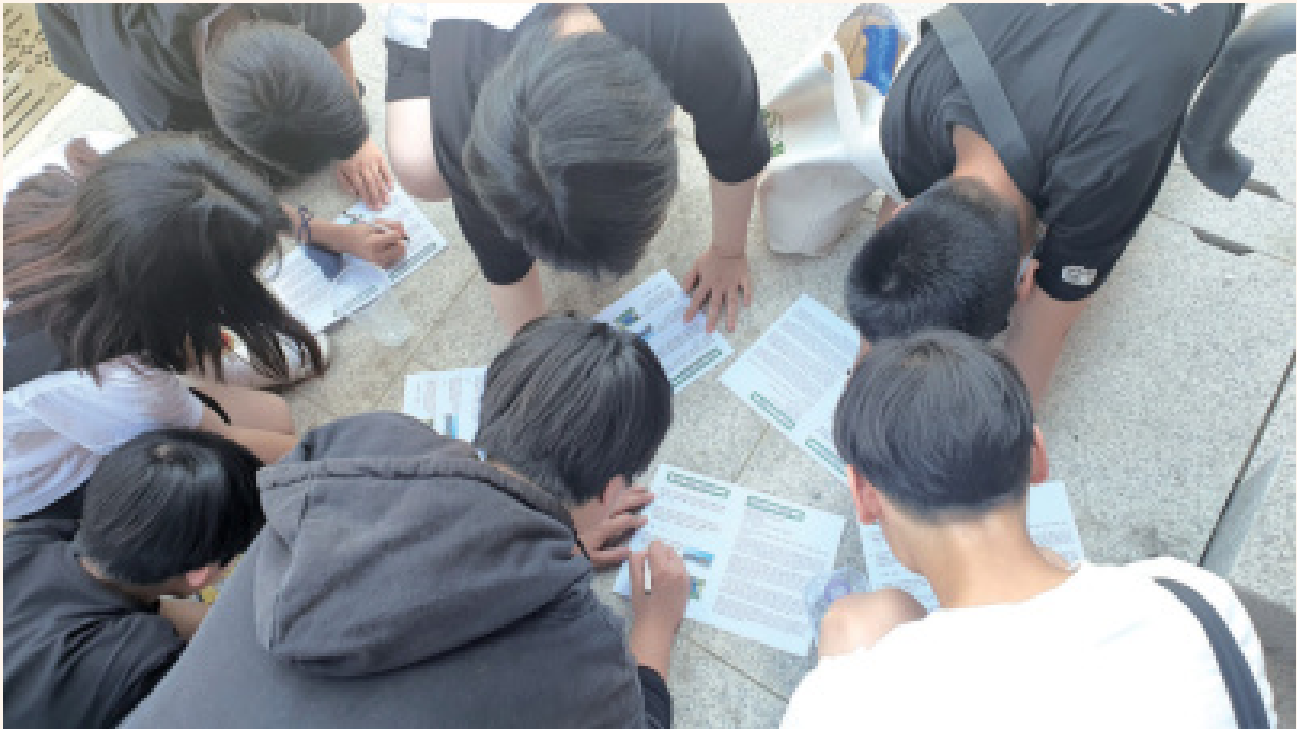
고양시의 경우 해마다 고양 국제꽃박람회를 연다. 1977년 국내 최초로 시작돼 고양 화훼농가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화훼 수출의 역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외에 주목받는 글로벌 꽃박람회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어떨까. 진해군항제(벚꽃 축제)는 이미 ‘국민축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올해 61회를 맞았으니 가장 오래된 테마축제 중 하나다. 그럼 용인은?

다양한 평가, 발전의 디딤돌로

처인성 현지에서 모든 행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틀에 걸쳐 약 2만여 명이 참석

해 성황을 이뤘다. 예전에 비해 많은 사람이 다녀간 것은 몇 가지 이유로 보인다. 처인성 정비사업과 처인성 교육관 건립 등으로 주변 여건이 좋아진 데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겨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인근 주민들이 확보된 셈이다.

상설부스로는 처인승첩 해설 부스와 체험 코너를 중심으로 설치됐다. 처인승첩 해설 부스는 용인문화원이 담당했다. 용인 특히 원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셀러들이 참여하는 용담호수 톨마켓을 처인성으로 옮겨와 다양한 체험기회를 선사하기도 했다.



처인성 활쏘기 대회는 김간쫂협회가 주관해 처인성과 주변 잔디밭을 활용해 진행됐다. 우리나라 양궁 전 국가대표 윤미진 선수 등이 활쏘기 지도에 나서는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용인, 과연 축제 자원이 없을까

‘100만 인구 클럽’인 특례시 3곳이 향토자산을 활용해 지자체 대표축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반면 용인시는 처인성 문화제, 포은문화제, 용인예술제, 보정동 카페거리축제 등 15개 이상의 다양한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딱히 용인을 대표할 만한 이렇다 할 문화 콘텐츠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과연 그럴까. 용인시는 2020년 기준으로 국보 4종을 포함해 서리고려백자요지 등 국가지정 문화재만 63종에 달한다.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역 등 경기도지정 문화재 57종, 향토 문화재 59종을 포함해 총 179종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유산 분포 역시 고른 편이다. 시대적으로 봐도 선사시대 유물부터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를 넘어 근대까지 시대별 분포도 다양하다. 한 도시에 이처럼 여러 시대의 유물이 산재한 지역이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특히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한국민속촌, 농촌테마파크를 비롯한 관광자원과 생태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원까지 포함하면 경기도 내 관광 방문객 수 1위라는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차고 넘치는 고장이 용인이다. 문제는 용인 고유의 자원, 키워낸 자산이 아니라서 역사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로 키워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처인성문화제의 남은 과제

처인성 문화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는 지역성을 넘어 전국 축제로의 비전이다. 처인성이 역사 교과서는 물론 드라마 단골 소재임에도 처인성 문화제를 찾는 이들은 대개 지역민이다. 타깃 자체가 지역민이다보니 프로그램이 주제와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격조마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두 번째는 대표축제로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다. 전체 예산이 수천만 원 단위다. 동네 축제 수준이다. 전문성도 크게 떨어진다. 축제전문가를 포함한 경험 많은 집단이 결합해야 한다.

공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공간구성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농지 매입이나 영구임대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차장과 이동수단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올해가 처인승첩 791주년이다. 머잖아 800주년이 된다. 800주년에 맞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준비해 간다면 9년 후에는 용인을 대표하는 전국 역사문화축제이자 더 멀리 글로벌 축제로서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전쟁에서 평화로!’라는 테마로 몽골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열어가는 매개체로 처인성 문화제가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수도 있다. 전쟁을 넘어 평화를 지키는 것의 소중함이 더욱 절절한 우리 현실에선 더욱 처인성이 빛난다.

용인문화원 제18대 심언택 원장 · 19대 최영철 원장 이·취임식



2023년 3월 7일 용인시청 문화예술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용인문화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임하는 심언택 문화원장은 2021년 4월 21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 2년간 용인문화원을 훌륭하게 이끌어 왔다.

최영철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용인시 문화 비전에 발맞춰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의 구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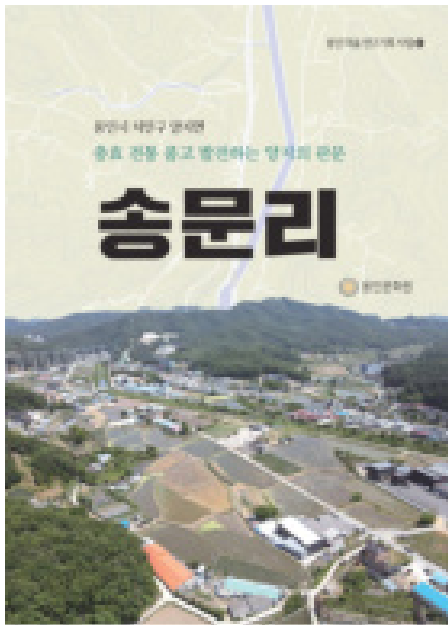


이상일 용인시장은 “풍부한 경험과 경륜, 학식을 갖춘 최영철 신임원장이 문화원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이면 설립 70주년을 맞는다. 용인문화원은 경기도에서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네 번째로 설립된 문화원으로 알고 있다. 용인의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시민의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하는 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편 최영철 신임 문화원장은 2023년 3월 17일 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2년도 마을지 '송문리' 출판기념회 진행



2023년 3월 2일(목) 용인 고박사 냉면에서 2022년도 마을지 '송문리' 편 출판기념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송문리 마을지>,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일대는 용인 지역에서 현재까지 농촌 마을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 문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산업구조에서도 농업이 주를 이루며 이외 경제 구조도 농업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조선 중기이래 야성 송씨와 전주 류씨가 정착하면서 집성촌이 형성된 곳이다. 현재도 다른 지역에 비해 두 성씨의 비중이 높아 문중의 정체성도 높다.

송문리 주변 지역으로 고속도로와 대형 물류센터가 조성되고 산업시설이 입주하면서 원주민이 외지로 이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오랜 기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유지해 왔던 마을의 전통문화 자원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전통 마을의 형태가 해체되기 전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전통문화 자원을 조사하고 원래 거주민의 마을과 함께한 생활 구술 내용을 기록하여 마을의 원래 모습을 담아 보고자 진행되었다.

2022년도 구술생애사 12집 '용인의 예술인 편' 발간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는 2022년 구술생애사 '용인의 예술인 편'을 발간하였다. 이번 구술 주제는 '용인 예술사를 이끈 예술계 인물'로서 용인 예술사를 이끈 인물들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파악하고자 선정하게 되었다.

구술대상자는 용인 국악 발전에 씨앗이 된 김정숙 선생, 용인의 문학 발전을 일궈낸 김종경 선생, 전통적 방식으로 고려백자의 정신을 잇고 있는 마순관(馬順官) 공예명장, 용인 미술·생활과학의 선도자[先導

者] 이강수(李康壽) 선생, 용인시 향토문화재 지정에 고증과 연구로 기여한 전통 무용가이며 민속학자이신 이병옥(李炳玉) 선생, 용인서정3세대의 산실 '카페 동인(同人)' 임준규 대표, 연극배우·연출가·극작가로 용인을 넘어 경기도연극계를 이끄는 극단개벽 대표 한원식(韓元植) 연출가로 총 7명의 예술계 인물이 선정되었다.

한편 구술생애사는 매년 1회 발간되며 2023년도도 발간될 예정이다.

3.21 만세운동 행사 진행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원삼 농협 광장에서 제 104주년 용인3.21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열렸다.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진행된 행사는 최영철 용인문화원장의 기념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리틀용인 아이들의 '뮤지컬 안중근 영웅' 공연과 국학원의 애국가 퍼포먼스로 지역주민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1919년 3월 21일 만세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초대해 지역주민들이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기념식 후 20분간 고당리 만세운동길을 시민들과 걸으며 선인들의 애국정신을 본받고,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도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본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 힘써준 원삼면 지역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독립운동기념사업회 가입 문의

: ☎ 031-324-9501/9600 (용인문화원)

5월 25일 독립운동기념사업회 답사 진행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 25일(목)에 답사를 진행하였다.

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안성 3·1 운동기념관을 시작으로 안성독립운동역사마을, 천안독립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번 답사를 통해 기념사업회 회원들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정신을 기리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 독립운동기념사업회 가입 문의

: ☎ 031-324-9501/9600 (용인문화원)



독립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2023년 상반기 전국역사문화기행 답사



제148차 경기도 구리, 남양주시 팔당유역 역사문화탐방

- 일시 : 2023.01.27.(금)
- 코스 : 고구려 대장간 마을 - 동구릉 - 사릉(정순왕후릉) - 석실마을 - 정약용 유적지 - 실학박물관



제149차 충청남도 서천군

- 일시 : 2023.02.17.(금)
- 코스 : 월남 이상재 생가 - 문헌서원 - 서천국립생태원
- 장항 스카이워크 - 마량리동백나무숲 - 비인오층석탑



제150차 전라북도 진안군 1억년의 신비, 마이산을 만나다

- 일시 : 2023.03.17.(금)
- 코스 : 진안 역사박물관 - 마이산국립공원 - 용담댐물문화관 - 운일암·반일암



제151차 경상남도 함양군 영남 정자문화의 보고

- 일시 : 2023.04.24.(금)
- 코스 : 함양상림 - 학사루 - 개평한옥마을 - 청계서원·
남계서원 - 광풍루 - 농월정 - 거연정·군자정



제152차 강원도 원주시 섬강은 어드메요, 치악이 여기로다

- 일시 : 2023.05.19.(금)
- 코스 : 흥법사지 - 김제남신도비 - 조엄 기념관 - 강원
감영 - 원주역사박물관 - 박경리문학공원 - 법천
사지



제153차 부산광역시 해양/대륙의 접경, 역사와 미래의 도시

- 일시 : 2023.06.16.(금) ~ 06.17.(토)
- 코스 : ▷ 1일차 (6/16 금)
해동용궁사 - 오륙도 스카이워크 - 이기대 해
안산책로 - 부산시립박물관 - 동백섬 누리마루
▷ 2일차 (6/17 토)
태종대(영도) - 용두산 공원(남포동) - 감천문
화마을